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개발

연구 책임 최윤선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태연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교수)
배성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초빙교수)
연구 지원 임예슬 (본원 연구원)

□ 발 간 사 □

최근 보육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또래 아동과는 다른 행동이나 발달양상을 보이는 영유아, 흔히 ‘경계선 영유아’ 라고 불리는 장애위험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공적 지원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올해 초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장애위험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와 부모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가이드북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개념과 발달적 특성, 선별검사와 지원방법,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부모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단순히 문제를 유발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발달지연을 줄이고 2차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이드북을 통해 사회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장애위험 영유아가 편견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연구계획보고 단계에서부터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도청의 관련사업 진행현황을 전달해주시고 논의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기도 보육정책과 이호원 팀장님과 이서운 주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의 유관기관 자문회의, 서면자문, 유선자문을 통해 보고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보육현장에 대한 배포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주신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구의 방향성에 관해 자문해주신 지성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사업팀 과장님과 고재

육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이드북 초안을 읽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신 부모, 교사 간담회 참석자 분들의 도움이 감사드립니다. 완성된 가이드북의 감수를 담당해주신 박찬우선생님과 신미숙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느라 애쓴 연구책임자 최윤선 연구위원과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김태연 교수,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배성현 초빙교수, 임예슬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0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김경옥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위험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이에 따른 공적서비스 제공 요구가 대두됨.
- 장애로 진단 받은 영유아와 달리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보육현장의 일반적 인식과 이해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그러나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선별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며, 부모와 교사의 협조 하에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예방과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고 전형적인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제3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장애위험 영유아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반영하였으며, 상담지원 인력 배치로 부모/교사 상담지원,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치료/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임.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 고찰
 - 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 검토
 -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지원 가이드북 구성

□ 연구방법

- 장애위험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 관련 문헌연구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관련변인 검토
-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개발된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 적절성, 이해도 확인을 위한 부모/교사 FGI
- 개발된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과 활용 적절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감수

2. 연구추진 결과

가. 교사용 가이드북 개발

- 교사용 가이드북은 보육교직원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보육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발달지식과 장애위험 선별과정에 대한 정보, 장애위험 영유아 및 부모와의 상담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룸. 이 자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직원 교육이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교사용 가이드북은 영유아 발달의 이해, 기관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맞춤형 발달 지원의 순서로 구성됨

나. 부모용 가이드북 개발

- 부모용 가이드북은 교사용에 비해 난이도를 낮추고 업무 흐름보다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함. 형식적 교육에서 사용되는 자료라기 보다는, 주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대하는 학부모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가이드북의 기능을 목표로 함
- 부모용 가이드북은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 순서로 구성됨

3.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교사용, 부모용 가이드북은 학문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초안으로, 교육 자료나 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보다 효율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반인을 위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안내 책자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집단교육의 기초자료로 재편집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지원 가이드북은 보육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영유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선별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림으로써, 해당 영유아가 기피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며, 교사와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교육이나 대학, 양성기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요구조사 결과

1. 이론적 배경	11
가. 장애위험 영유아의 개념	11
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교육의 필요성	11
다. 국내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14
2. 지원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18
가. 조사개요	18
나. 조사결과	20

제3장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사용 및 부모용 가이드북

1. 지원 가이드북 개발 방향 및 활용	29
가. 지원 가이드북 개발 방향과 구성	29
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29
2.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31
가.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목차	31
나.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내용	32
3. 부모용 가이드북	69
가. 부모용 가이드북 목차	69
나. 부모용 가이드북 내용	69

참고문헌	95
------------	----

부 록	99
--------------	----

표 목 차

<표 1-1>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중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과제	4
<표 2-1> 장애위험 영유아 판단 근거	13
<표 2-2>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선별도구 이용 여부	13
<표 2-3>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외부지원 요청 전 지원방법	14
<표 2-4> 선별도구 활용법 관련 교육이수 의향	14
<표 2-5>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16
<표 3-1> 요구조사 대상자 및 조사내용	1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7
<그림 2-1>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한 중재 과정	12
<그림 3-1>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목차	31
<그림 3-2>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적 민감기	33
<그림 4-1> 부모용 가이드북 목차	69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애위험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이에 따른 공적서비스 제공 요구가 대두되었다(백선정, 배성현, 2020). 그러나 보육·교육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분명하고, 부모와 교직원들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지원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위험 발견-치료 지원체계 구성 등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정책이 미흡하며, 국비지원 규정 등 법적근거도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로 진단 받은 영유아와 달리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보육현장의 일반적 인식과 이해도는 매우 낮다. 장애위험 영유아는 그 발달 수준에 적절한 별도의 지원 없이 하위연령 학급으로 편성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보건복지부, 2020a), 연령에 맞는 발달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친구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어린이집에 부적응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정희정, 이재연, 2008). 장애위험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부모와 어린이집 현장의 보육교직원은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 실제 간의 간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백선정, 배성현, 2020).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선별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부모와 교사의 협조 하에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예방과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고 전형적인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김우리, 박지연, 20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기에는 주양육자인 부모와 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방식은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위험 영유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직원의 지원 역시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박현옥, 이정은, 2007).

장애위험 영유아를 접하는 보육교직원들은 보육 역량 강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심층검사와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백선정, 배성현, 2020). 지금까지 장애위험 영유아 판별에 있어 정확한 선별검사 결과보다는 보육교직원의 사전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선별도구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수하겠다고 답하였다. 담당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교수방법 및 전문지식 부족이 보고되어, 인력 지원이나 부모와의 협력 이상으로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위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모와의 소통 문제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보육교직원뿐 아니라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제3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장애위험 영유아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반영하였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중 취약보육 강화파트의 세부과제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지원체계 구축,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백선정, 2018). 이에 따라, 취약보육 대상 추가를 통해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지원 인력 배치로 부모/교사 상담지원,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치료/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1년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표 1-1〉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중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과제

관련 과제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 진단을 받지 않은 경계선상아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 경계선상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을 통해 보육활동의 안정화 도모 경계선상아 방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	경계선상 영유아, 부모, 담당교사	시·군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소아발달전문가 배치 어린이집과 부모가 저비용으로 전문가 치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위험 - 장애아 담당 교사 직무연수 강화	경계선상-장애아 담당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보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경감 교사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 완화	유아특수교사가 아니라도 경계선상아,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 및 원장 (부모에게 개방 가능)	경계선상아-장애아보육 관련 전문 교육 및 상담

출처: 백선정(2018).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의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와 지원에 관해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선별검사, 교육서비스 연계, 가족지원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다(백선정, 배성현,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전형적 발달을 보이는 영유아와 다른 장애위험 영유아의 특성, 필요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부모와 교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교육 관련 국내외 연구 고찰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교사/부모 관점)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와 효과

나.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지원 가이드북 구성

-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구성: 장애위험 영유아 특성과 지도방법, 선별검사 종류와 방법, 지원연계 서비스 정보 등
- 부모용 지원 가이드북 구성: 장애위험 영유아 특성, 자녀와 상호작용 방법, 간략한 체크리스트, 부모를 위한 상담-치료 지원 서비스 정보 등

다.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나.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를 통한 가이드북 초안 개발, 부모/교사 FGI, 현장적용을 위한 가이드북 감수 등을 실시하였다.

- 문헌연구
 - 장애위험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교직원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 관련변인 검토
 - 국내외에서 시행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

-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보육현장 지원현황과 가이드북 방향성 자문
 -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사업 계획과 가이드북, 교육콘텐츠의 활용방안

- 가이드북 초안 개발
 - 교사용/부모용 지원 가이드북 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연구
 - 연구진 회의를 통한 가이드북 목차 검토, 내용 구성

- 부모/교사 FGI
 - 개발된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 적절성, 이해도 확인을 위한 대상 집단 피드백 수렴
(경기도 취학전 영유아 학부모와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 대상)

- 가이드북 개발 및 감수
 - 개발된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과 활용 적절성 검토
(보육, 특수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감수와 수정 보완)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고찰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연구계획보고회 개최		▷ 연구내용과 방법 검토
3단계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정책 현황, 국내외 프로그램 검토 ▷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현황과 이후 지원계획에 관한 현장전문가 자문
4단계	교사용, 부모용 지원 가이드북 초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초안 구성 ▷ 부모용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초안 구성
5단계	현장적용을 위한 검토 FGI, 분야별 감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취학전 영유아 학부모, 전·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 실시, 지원 가이드북 초안에 대한 피드백 수렴 ▷ 보육/특수교육분야 감수 실시
6단계	정책적 활용방안 도출		▷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의 정책적 활용방안 도출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요구조사 결과

1. 이론적 배경
2. 지원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1. 이론적 배경

가. 장애위험 영유아의 개념

장애위험 영유아(children at-risk)란, 현재 장애로 판별되진 않으나 계속적으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향후 학교생활에서 실패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은 영유아를 의미한다(Spodek & Saracho, 1994). 이소현(2020)은 장애위험 유아를 장애유아 및 발달 지체유아의 특성과 다르게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위험 유아들의 출현율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 3세 이하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적 문제를 발견하여 중재할 경우, 향후 문제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영유아가 가진 발달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Culp et al., 2004).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발달지연 등을 조기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유아들을 10-15년간 추적하여, 대상 영유아들이 발달적 이득을 얻었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Kitzman et al., 1997).

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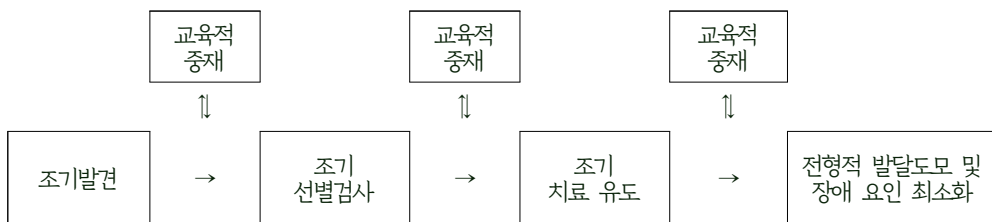
장애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중재에서 가족, 기관,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 요소를 배제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Webster-Stratton & Reid, 2003), 보다 우수한 예방적 효과를 얻기 위해 가족, 기관,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정신건강 치료 및 예방 체계를 지원하였다. 연방정부차원에서 모성 및 영유아가정방문서비스인 MIECHV(Me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Visiting Program)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임산부 시기부터 출산 후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영유아 정신건강 전문가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프로그램 시행 후, 10~15년간 추적연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개입이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Culp et al., 2004; Kitzman et al., 1997).

장애위험 영유아의 중재는 대상자 발견(finding)과 선별(screening)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백선정, 배성현, 2020). 초기 발견과정에 있어, 여러 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접하고 전형적 발

달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담임교사나 특수교육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견과 선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사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발견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해 개별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기관을 안내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연계의 홍보라는 제한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협력적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팀 접근으로서의 참여를 의미한다(김삼섭 외, 2018).

초기 발견 이후 효과적인 예방적 중재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거쳐서 선별검사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장애위험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현황에 대한 면담조사에 응답하며 평상시 집에서 보이는 행동을 가감없이 전문가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림 2-1〉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한 중재 과정



출처 : 백선정, 배성현(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아래 <표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의 판단은 보육교직원의 사전지식(원장 73.1%, 교사 58.2%)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으며, 그 외에 주변교사와의 면담(원장 14.3%, 교사 21.6%), 외부 관련 전문가의 자문(원장 6.0%, 교사 9.2%), 지도서 및 전문서적 활용(원장 4.9%, 교사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직원 대상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1〉 장애위험 영유아 판단 근거

(단위: 명, %)

구분	사전지식	관련 전문가 외부 자문	주변교사 면담	대중매체 정보 활용	지도서, 전문서적 활용	전체
원장	266 (73.1)	22 (6.0)	52 (14.3)	6 (1.6)	18 (4.9)	364 (100.0)
교사	468 (58.2)	74 (9.2)	174 (21.6)	22 (2.7)	66 (8.2)	804 (100.0)

출처: 백선정, 배성현(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의 표 재구성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선별도구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3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원장 33.2%, 교사 29.3%). 가장 많은 응답은 사용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었으며(원장 37.8%, 교사 49.1%), 기타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도 높았다(원장 28.9%, 교사 21.6%). 선별도구의 사용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보육교사의 경력기간이 길수록, 영아보다 유아를 보육할 경우 선별도구 활용도가 더 높았다.

〈표 2-2〉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선별도구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용함	사용하고 싶어도 선별도구 활용법 모름	사용하지 않음	전체
원장	123 (33.2)	140 (37.8)	107 (28.9)	370 (100.0)
교사	240 (29.3)	403 (49.1)	177 (21.6)	820 (100.0)

출처: 백선정, 배성현(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의 표 재구성

아래 〈표 2-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장애위험이 의심되는 영유아가 발생 시 지원을 요청하기 전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관찰 및 일화기록 등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원장 86.5%, 교사 81.3%). 직접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주관적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당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기능을 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수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표 2-3〉 장애위험 영유아로 의심될 경우, 외부지원 요청 전 지원방법

(단위: 명, %)

구분	관찰 및 일화기록 등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	동영상 촬영을 통한 자료수집	온라인 업체에서 제공하는 발달검사 실시	인터넷에서 검색한 발달검사 실시	전체
원장	308 (86.5)	24 (6.7)	14 (3.9)	10 (2.8)	356 (100.0)
교사	309 (81.3)	33 (8.7)	12 (3.2)	26 (6.8)	380 (100.0)

출처: 백선정, 배성현(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의 표 재구성

장애위험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선별도구 활용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수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원장 91.9%, 교사 92.2%). 즉, 보육교직원들의 장애위험 판단을 위한 선별검사 활용법을 익히고자 하는 요구도가 매우 크며, 이는 기관유형이나 경력기간, 담당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표 2-4〉 선별도구 활용법 관련 교육이수 의향

(단위: 명, %)

구분	이수 의향 있음	이수 의향 없음	전체
원장	340 (91.9)	30 (8.1)	370 (100.0)
교사	756 (92.2)	64 (7.8)	820 (100.0)

출처: 백선정, 배성현(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의 표 재구성

다. 국내외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인크레더블 이어즈 프로그램(Incredible Years Program), SSBD(Systematic Screening for Behavior Disorders: SSBD: 행동장애 체계적 선별),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 트리플피-공정 양육 프로그램(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유아교육기관의 피라미드 모델, 예방-교수-강화 모델(Prevent-Teach-Reinforce 모델, 이하 PTR), 유아를 위한 스킬스트리밍교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Holland, Malmberg & Peacock, 2018).

Incredible Years® 증거 기반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도전적인 행동을 줄이고 사회적 정서적 학습 및 자기 통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 및 학부모 관리 기술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 정서 규정 및 학교 준비 상태를 개선하고,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SSBD(Systematic Screening for Behavior Disorders: SSBD: 행동장애 체계적 선별)는 일종의 선별도구 및 검사절차로써, 행동장애아에 대한 교사추천과 평정과정을 거쳐서 직접관찰을 통해 판별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뢰 전 중재와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Fast Track Program(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부모중심중재, 학급중재, 아동중심중재를 통하여 종합적인 조기중재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아동에게 양육중재를 하고,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며 학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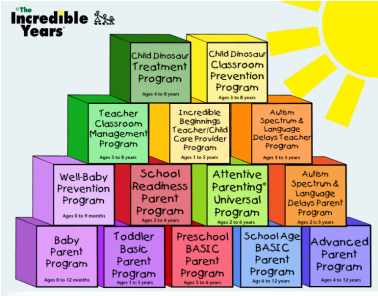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트리플피 긍정양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양육상담이나 부모교육에서부터 심각한 증상을 갖고 있는 장애위험군에 대한 접근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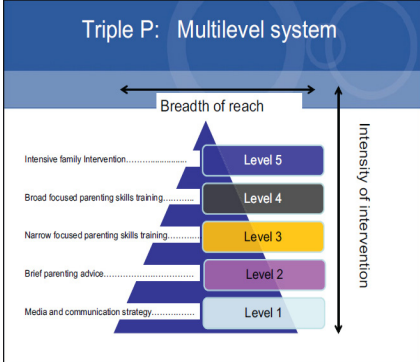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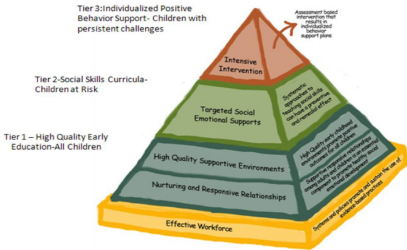
유아교육기관의 피라미드 모델은 다중단계 지원시스템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 문제행동과 학업실패를 감소시키는 예방 및 중재 접근 모델이다. 친사회적 행동을 교수하고 모델링하며 강화함으로써 행동관리를 하고 긍정적으로 사전대책을 취하는 접근방법이며, 개별 차원, 학급 차원, 학교 차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예방-교수-강화 모델(Prevent-Teach-Reinforce 모델, 이하 PTR)인 PTR은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하여 도전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소를 예방하고(Prevent), 대체행동을 교수하며(Teach), 적절한 행동을 강화(Reinforce)하기 위한 모델이다. 중재계획을 실천하는 주체는 학교의 교사, 가정의 부모, 지역사회기관의 종사자이며 전문가는 적절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칭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교사, 부모, 종사자들과 회의를 통해 계획한 중재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시범을 보이며, 근접/원격지원 등을 제공한다.

유아를 위한 스킬스트리밍교수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을 위하여 통합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교수를 통한 기술의 일반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2-5〉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해의 자료	참고할 만한 내용	출처
<p>인크레더블 이어즈 프로그램 (Incredible Years Pro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또는 교사는 두 명의 훈련된 진행자가 함께 하는 그룹에서 만남. 그들은 자녀를 관리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전략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어린이는 숙련된 교사, 또는 치료 전문가가 함께 하는 소그룹이나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규칙을 준수하고 협조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분노를 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배움  <p>출처: The Incredible Years</p>	<p>Foster, Olchowski, & Webster -Stratton (2007)</p>
<p>SSBD (Systematic Screening for Behavior Disorders: SSBD: 행동장애 체계적 선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판단이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발견하는 타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가정 아래 개발된 검사도구 또는 절차 • 1단계: 교사추천(외현화, 내재화문제행동 영유아 선별) • 2단계: 교사평정(평정결과 정상기준을 초과한 영유아 다음 단계 이동) • 3단계: 직접관찰(참여행동과 사회적 행동을 지속간격기록법으로 측정→ 의뢰 전 중재,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의뢰) 	<p>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8)</p>
<p>패스트트랙 프로그램 (FAST Track Pro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 부모중심 중재, 학급중재, 아동중심 중재를 통한 종합적인 조기중재/예방 프로그램 • 정서적 이해, 교우관계기술 • 자기조절기술,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등에 대한 학습수준의 중재 •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아동에게 양육중재, 사회적 기술훈련, 학업지도 제공 	<p>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2)</p>
<p>트리플피- 공정 양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는 높아지고, 폭은 좁아지는 층으로 된 다섯 가지 수준의 중재 • 1수준: 매체, 안내서, 비디오테이프 등을 통해 전체 영유아에게 양육전략 전달 	<p>Prinz (2014)</p>

해외 자료	참고할 만한 내용	출처
<p>프로그램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수준: 가벼운 문제행동에 대해 20~30분간 일반적인 아동관리의 발달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상담 • 3수준: 중간 정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양육기술 지도 • 4수준: 심각한 행동문제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개별 및 집단치료 • 5수준: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에게 집중적인 지원  <p>출처: Triple P 개입 체계 Supporting Parents of Children Ages 0-8 (2016) ※ 단, 전문가가 제공하며, 중재기간이 길.</p>	
<p>유아교육기관의 피라미드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응 행동 감소 및 예방,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학교/학급/개별차원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보편적 지원 - 긍정적인 관계 및 지원적 환경: 유아교육기관 내 모든 영유아와 교사, 환경의 변화를 통한 긍정적 문화 조성 • 2단계: 표적집단 중재 - 사회정서적인 지원: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행동문제를 보이는 영유아들에게 추가지원 제공 • 3단계: 집중적 지원 - 기능평가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 고위험 행동문제를 보이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제공  <p>처: The National Center for Pyramid Model Innovations</p>	<p>박혜진 (2015)</p>

해외 자료	참고할 만한 내용	출처
예방-교수 -강화 모델 (Prevent -Teach -Reinforce model, P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R이란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하여 도전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소를 예방하고(Prevent), 대체행동을 교수하며(Teach), 적절한 행동을 강화(Reinforce)하기 위한 모델 • 예방하기: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 특정 활동, 특정사람, 특정상황,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리나 동선을 변경하거나 과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할 여지를 줄여나감 • 가르치기: 도전적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나 휴식을 요청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등의 문제해결 기술을 익힘 • 강화하기: 문제행동으로 얻었던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 격려하여 동일한 결과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계획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2018) Dunlap, Iovannone, Kincaid, Wilson, Christiansen, Strain, & English (2010)
『유아를 위한 스킬스트리밍 교수』를 적용한 확장된 스킬스트리밍 교수(McGinnis,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 I 사회성 기술을 시작하기 (Beginning Social Skills) • 영역 II 학교와 관련된 기술 (School-Related Skills) • 영역 III 우정 만들기 기술 (Friendship-Making Skills) • 영역 IV 감정 다루기 (Dealing with Feelings) • 영역 V 공격행동에 대한 대안행동 (Alternatives to Aggression) • 영역 VI 스트레스 다루기 (Dealing with Stress) 	문화원 (2014)

2. 지원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가. 조사개요

경기도 내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개발을 위해 자문회의 3회, 초점집단면접 2회, 분야별 감수 2회를 시행하였다. 1차 유관기관 자문회의에서는 도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구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북 개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후의 연구진행 일정, 주체별 역할 분담, 상담지원 인력 제도와의 연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 안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현장전문가로서 어린이집 원장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아동학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사교육의 필요성, 발달지원센터 등 전문적 지원을 제

공할 수 있는 센터와의 연계, 상대적으로 정보망이 부족한 영유아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과 배포 방식,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3차 유관기관 자문 회의에서는 작성된 가이드북 초안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현장적용을 위한 조율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교사와 부모의 인식 개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반성 관련내용을 추가하고,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선별검사 내용 상세화 등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었다.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 초안을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 대상의 초점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장애위험 영유아와 관련된 경험을 가진 경기도 학부모와 전·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훑으며 내용과 구성의 적절성, 이해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렇게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가이드북을 수정하였다. 또한 보육,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이드북 구성에 대한 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가이드북을 완성하였다.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요구조사 대상자 및 조사내용

일시	주요 내용	참석자	참석인원
(1차) 2020.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현장에 적용가능한 가이드북 개발의 필요성 공유 • 연구진행 일정과 역할 분담 논의 • 가이드북 감수 전문가의 다양화 모색 (보육, 특수교육전문가 포함)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주무관 연구진	7
(2차) 202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공유 • 상대적으로 정보망이 부족한 영유아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배포(안) 논의 •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안) 모색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어린이집 원장(현장전문가) 아동학 전문가 연구진	6
(3차) 2020.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한 명료화 필요 • 영유아인권 내용 부각 • 건강검진 중 선별검사의 내용 상세화 (실제 사진 추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연구진	5
부모/교사 FGI 2020.1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분류 • 장애위험 영유아의 개념 부분을 앞쪽으로 빼서 강조하고, 가이드북의 목표가 잘 드러나도록 조정 • 부모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의 챕터로 구성 • 편집을 통해 전체 내용의 흐름이나 중요한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겠음 	학부모 5인 교사 3인	11

일시	주요 내용	참석자	참석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용 가이드북의 경우, 혼자 읽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으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자료로 활용가능 (동영상, 사진 자료 등을 추가할 필요성) 	연구진	
분야별 감수 2020.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와 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행동전략에 대한 내용 포함 편집과정에서 주요내용들이 잘 드러나도록 가독성 향상 요망 	보육전문가 1인 특수교육전문가 1인	2

나. 조사결과

1) 보육현장을 반영한 가이드북 구성

가) 홍보 및 안내

보육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국 직장어린이집 원장 모임에서 관련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주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치료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계하거나 민간기관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상담지원 인력을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과 부모상담, 지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적절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새롭게 배치될 상담지원 인력의 역할 명료화를 통해 현장도입 후 신속한 적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현장에서 거부감 없이 통용될 용어의 고안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계선 상의 영유아는 학문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일부만을 포함한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단어는 기관부적응아와의 명확한 구분도 가능해야 한다. 용어는 사회적 인식은 물론 교사의 교수방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미숙아’ 라는 단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둥이’ 라는 말처럼, 부모의 거부감을 줄이면서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용어를 찾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용어 공모전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나) 기관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선별과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매우 적다. 원장연수나 교사 보수교육 등에서 한국판 영유아발달선별검사(이하 K-DST)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별검사도구에 대해 소개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며, 추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유용할 것이다. 특히 K-DST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어린이집에 공유하게 되어있음에도, 대부분의 교사가 이를 눈여겨보지 않거나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가 필요하다.

상담지원 인력 배치시, 현실적으로 한 명의 상담사가 한 개 시의 모든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담임교사가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해석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담지원 인력의 활동방식에 대해 도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논의하고, 현장지원과 온라인 검사결과 해석을 비롯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일시적인 기관 부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적응을 보이는 영유아의 차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영유아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이 항상 심각한 수준의 장애위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문제, 부모의 취업,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일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시적 행동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치료, 상담 등을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아이와 부모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교사의 인식개선

보육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는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교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요인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를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전형적 발달을 돕고 2차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영유아가 있으면 원장이 대처하거나, 원장실로 데려가서 개별보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영유아를 위한 인력 지원, 정확한 정보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선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0세 영아의 경우에는 선별검사가 어렵지만 교직원들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사가 직접 부모에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설명을 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가 쌓인 유아기에 비해, 어린 연령일수록 교사의 말만으로 장애위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근거나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별검사도구 활용과 상담지원 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

2)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프 로파일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기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방치하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정의 경우 사설치료기관으로 연결하기가 부담 스러운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영유아 발달과 부모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장애로 진단받은 영유아 외에, 장애위험군 영유아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진단을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의사)소견서 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며, 만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심소견, 혹은 이후 상담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선별검사를 받는다면 이를 기반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요청 중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와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특히 각 시군구의 지원을 위해 기초센터를 세우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북에 반영하여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3) 부모를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장애위험 영유아를 가진 영유아기 부모들의 경우, 초등학교 이후에 비해 자녀의 장애위험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아직까지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도 약하고 정보를 얻을 곳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발달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용어에서 오는 부담감, 이후 기록이 남아 군입대, 취업 등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의 발달장애 등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학령기 이후 복지카드를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진료기록은 남지만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리고, 지원서비스 체계로의 조기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경우, 다른 학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영유아를 배제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교직원들이 아무리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품고 가려고 해도, 다른 부모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장애위험 영유아를 다루는 교직원과 부모 뿐 아니라, 그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다른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부모들은 선별검사 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상담지원 인력, 보육교사에 의한 검사는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명시하면 보다 선별검사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직접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지 확인하고, 선별검사도구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가독성 높은 가이드북 고안

교사용 가이드북의 경우, 부모용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아 보수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A5 사이즈보다 B5 사이즈로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편집과 순서 변경 등을 통해 교사가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용 구성에 있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혹은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면 부모상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이드북을 통해 K-DST와 같은 검사도구에 대해 소개하고 추후 교사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사용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교

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영유아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프레임에 넣어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영유아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된 교사를 위한 교수/상담 전략이, 현직 교사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교사가 혼자 읽고 따라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쉽게 풀어쓰거나 현장교육을 통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들이 영유아의 상황을 부모와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찰일지, 동영상 등 상담을 위해 유용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별 후에 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정리해서 도식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는 어려우므로,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동영상, 현장사진 등을 통해서 이해를 도우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부모들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위험 영유아’에 관한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게 순서를 정리하여, 먼저 개념과 지원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른 내용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부모용 가이드북의 예시를 조금 수정해서 각 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엄마’라는 단어보다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해당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모 역할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챕터로 뽑아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양육스트레스 등에 대한 내용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관한 내용 흐름과 다소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 가이드북의 내용상 ‘부모의 조급증이나 불안으로 인한 문제’를 돌아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불신감이나 아이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인,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부모교육 자료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검사/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다른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야 혼란이 적을 것이다.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행동과 같이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부모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어떤 영유아들이 장애위험군에 들어가는지 예시를 들어서 정리하고,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

도 알 수 있도록 행동특성들을 제시한다면 더욱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 위험군 영유아가 가장 자주 보이는 문제행동 등을 나열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위험 선별과 지원에 대한 흐름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담지원 인력/의사 소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의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간의 차이도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다.

제 3 장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사용 및 부모용 가이드북

1. 지원 가이드북 개발 방향 및 활용
2.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3. 부모용 지원 가이드북

1. 지원 가이드북 개발 방향 및 활용

가. 지원 가이드북 개발 방향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수가 늘어나고, 장애위험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가정과 보육·교육기관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현재의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장애위험 영유아를 양육하는 취학 전 영유아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경기도 현황에 맞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두 가지 가이드북은 대상에 따라 난이도나 다루는 내용이 다르다. 교사용 가이드북은 보육현장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발달지식과 장애위험 선별과정에 대한 정보, 장애위험 영유아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반면, 부모용 가이드북은 교사용에 비해 난이도를 낮추고 업무 흐름보다는 부모들이 알아야 할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매 장의 앞부분에 부모들이 궁금해 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문용어나 학술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본인의 주변 상황에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 활용방안

교사용 가이드북은 보육교직원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직원 교육이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교육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관 내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발생 시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의 구성 순서를 영유아 선별과 상담, 지원 순으로 배치하였다.

반면, 부모용 가이드북은 형식적 교육에서 사용되는 자료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대하는 학부모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가이드북의 기능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어려운 용어나 전문적인 검사, 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보다는 장애위험 영유아라는 대상에

대한 개념, 지원 필요성, 선별과정 등에 대해 홍보하는 가벼운 지식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교사용, 부모용 가이드북은 가이드북의 학문적 연구결과에 기반한 초안으로써, 교육 자료나 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현장적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자 대상 적용검증을 시행하고, 일반인을 위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안내 책자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집단교육의 기초자료로서 재편집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로 배포한다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지원 가이드북은 보육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기존에 이루어졌던 하위반 편성과 같은 임시적 대처가 아닌 영유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선별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림으로써, 해당 영유아가 기피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 또래와 동일하게 인식되어 해당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을 부모와 교사가 개인적으로 떠안아야 했던 문제에서 벗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교육콘텐츠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가이드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교육이나 대학, 양성기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가.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목차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목차를 구성하였다.

<그림 3-1>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목차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 I. 영유아 발달의 이해
 1. 영유아 발달의 특성과 원리
 - 1) 영유아 발달의 특성
 - 2) 영유아 발달의 원리
 - 3) 기질

 - II. 기관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1. 기관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방법
 - 1) 교사 스스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지 확인
 - 2) 공식적인 선별과정 이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

 - III.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1. 선별이란?
 - 1) 선별검사 실시와 부모상담 과정
 2. 심층검사 의뢰
 - 1) 심층검사(발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 2) 심층검사(발달평가) 및 치료지원 연계

 - IV. 맞춤형 발달 지원
 1. 교수지원
 2.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
-

나. 교사용 지원 가이드북 내용

요약본 소개: 지원 가이드북 제작 필요성과 활용방법

- 발달의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교육의 가능성과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발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는 영유아기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 발달과 성장에도 다양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관 적응의 어려움이나 발달의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여러 이유로 적절한 중재를 빨리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2차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는 영유아의 어려움을 발견·선별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선별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부모와 교사의 협조 하에 적절한 지원과 교육적 접근을 시행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 우리 반에 장애위험 영유아가 있어도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 빨리 치료나 진단을 받아야 영유아에게도,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아이마다 개인차가 다양하니까요 제가 조금씩 지도하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라도... 하지만 제가 지도하는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지도할 수 있는 실행지침은 없을까요?

- 본 지원 가이드북은 이런 고민을 가진 현장 교사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지원 가이드북은 다양한 발달적 차이가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 교사,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학급의 모든 영유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학급에 있는 모든 영유아는 저마다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지원 가이드북으로 기관부적응(행동문제)과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교사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원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지원방법을 적용해보면 작은 경험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지원 가이드북의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 발달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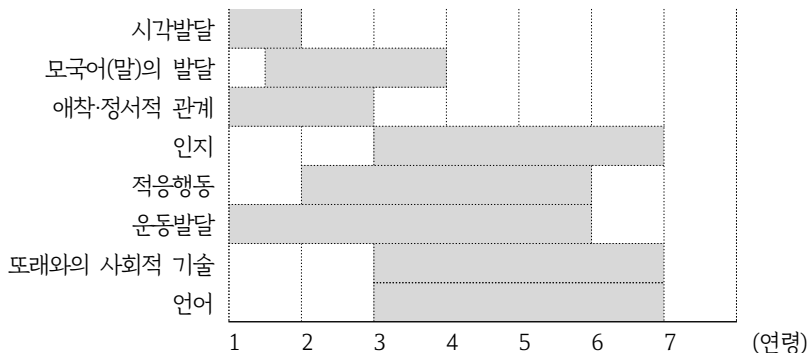
1. 영유아 발달의 특성과 원리

1) 영유아 발달의 특성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영유아기에는 발달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므로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달은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시기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역은 다릅니다. 영역별로 주요 발달시기를 기억하고, 해당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① 영유아의 발달영역은 ‘인지, 언어, 대근육소근육운동, 사회정서, 자조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합니다.
- ② 발달은 각 발달영역들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또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스스로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교사는 발달영역과 전형적인 발달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비전형적 현상을 이해하여, 발달상의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발달원리는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3-2〉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적 민감기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제1권 발달장애 양육지식 및 정보. p. 43 발췌 후 수정.

2) 영유아 발달의 원리

- ①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②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발달의 전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앓을 수 있게 된 다음 서게 되고, 서게 된 다음 걷게 됩니다.
- ③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머리 부분이 몸통이나 팔다리 보다 먼저 발달하고, 팔, 손목, 손, 손가락의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 ④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모든 행동이 미분화되어 전체적인 반응을 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정밀한 행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감각운동 기관을 협응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⑤ 발달은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가하면 심리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 ⑥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영유아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 Tip 적용

- 한국 영유아발달선별검사도구(월령별)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발달선별검사지 사용기간조회/검사지 서식

3) 기질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말하며, 영유아 행동을 특징 짓는 기본적인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양식을 의미합니다(김현호, 곽미정, 박연희, 박은주, 정윤희, 2019; 여성가족부, 2018).

① 순한 기질

- 대부분 차분하고, 대부분 긍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다.
- 충분한 수면으로도 행복해한다. 혼자서도 장난감을 갖고 잘 놀며 새로운 것이나 낯선 사람한테도 쉽게 적응을 잘하고 당황해하지 않는다.
- 잠자는 시간이나 음식 섭취와 배설 및 행동 등의 일과가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 새로운 경험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온화한 감정을 나타낸다.

※ Tip 적용

종종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감정 상태에 물어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까다로운 기질

- 생리적 기능에 있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다.
- 수면과 식사의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다.
-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와 의심을 보이며 음식섭관도 까다롭다.
- 잠에서 깰 때 눈을 뜨기 전부터 울며 욕구 좌절에 대한 부정적인 기분을 강렬히 나타낸다.

※ Tip 적용

규칙적인 일과를 강요하기 보다는 정서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영유아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느린(더딘) 기질

- 새로운 자극에 회피적이고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 활동이 많이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기분이 부정적이다.
-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까다로운 영유아와 비슷하지만 약하게 반응하고 활동량이 적다는 점이 다르다.
-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만 천천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 수면과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규칙성은 순한 영아와 까다로운 영아의 중간 정도이다.

※ Tip 적용

느리다고 재촉하거나 다그치면, 영유아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차츰 관심을 보이며 적응해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이나를 구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기질과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양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질은 부모와 교사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양육태도 역시 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Tip 안내 《교사의 자기이해》

-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다른 전략을 찾거나 과제의 수준을 수정하여 학습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교사의 태도는 영유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교사는 영유아를 수용하는 상황의 범위가 넓을 것입니다.
 - 교사가 시끄러운 소음을 싫어한다고 해서 영유아들이 모두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유능한 교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유아들이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교사의 개인적 욕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II. 기관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1. 기관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방법

→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교사 스스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지 확인

→ 영유아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면서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합니다.

영유아 및 양육환경 요인	<p>□신체적 건강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껴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p>□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면담을 통해 가정에서도 정서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

	<p>□ 잘못된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잘못된 행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에게 대체할 만한 행동을 가르치고 행동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p>□ 영유아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과제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능력 수준과 특성에 맞게 자세하고 친절하며 정확한 지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p>□ 가족의 기능과 정서적인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 어머니와 아버지 간 불화, 양육자 우울감(슬픈 감정, 자기비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유아에게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요인	<p>□ 교사가 자신의 교육방법 효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발달영역별 행동기술에 대해 점검합니다. <p>※ Tip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가이드북《연령별 발달의 적신호》참고 • 본 가이드북《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행동문제 체크리스트》참고 - 작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자료를 기록합니다. <p>※ Tip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가이드북《직접관찰-일화기록》참고 <p>□ 지도에 대한 속도, 시기, 방법이 부적절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준비되기 전에 빨리 변화를 주고자 하거나, 어떤 방법이 좋다고 하여 영유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기보다는 영유아의 준비도에 맞게 속도와 순서를 조절합니다. - 작은 단계로 나누어 서서히 접근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전 영유아의 준비도를 다시 점검하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p>□ 교사의 정서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가 자주 화를 내거나 영유아의 사소한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영유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교사 자신도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교수 효능감에 문제가 생기며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영유아에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과 중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적 요인	<p>□ 환경적 요인이 활동참여에 방해가 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이 좁거나 혼잡하면 영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체적 안전성,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을 확인합니다. <p>※ Tip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가이드북《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참고

출처: 김동일 외 (2016). 특수아상담. pp. 367-368 / 이희영, 허승희 공역 (2020). 아동생활지도: 구성주의적 접근. pp. 130-135 발췌 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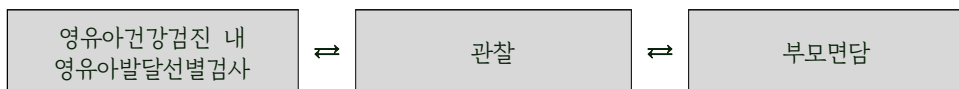
※ Tip 적용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

→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행동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점검사항
교실 크기	<input type="checkbox"/> 넓은 교실 환경이 크고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있지 않아 유아가 뛰어다닌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전체가 유아 수에 비해 협소해서 자꾸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또래의 놀잇감을 넘어뜨린다.
	<input type="checkbox"/> 교실 내에서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유아가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놀이 공간 구성	<input type="checkbox"/>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과 시끄럽고 동적인 공간이 인접해 있거나 구분없이 있어 유아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에 너무 여러 공간을 구성하여 공간이 좁다.
	<input type="checkbox"/>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유아들 간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소음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실이 시끄럽다.
	<input type="checkbox"/> 동적인 공간의 소음을 줄여줄 카펫, 가림판 등이 없어 소음이 다른 공간에 그대로 전달된다.
채광 및 조명	<input type="checkbox"/> 공간에 따라서 채광의 강도를 조절하는 부분, 조명등, 커튼, 블라인드 등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직사광선이 교실에 비추어 유아의 시력이 불편하다.
온도 습도	<input type="checkbox"/> 교실온도가 높아 유아들이 흥분해 있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 유아들이 예민하다.
색	<input type="checkbox"/> 환경에 지나친 원색사용으로 유아가 피로하거나 자극받는다.
교구 의자	<input type="checkbox"/> 교수, 놀잇감, 자료가 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보다 높이 있어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교구장 및 개인장에 유아가 스스로 참고 정리할 수 있는 사진, 그림 표시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방석, 쿠션, 안락의자, 흔들의자 등이 없다.
놀잇감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교구장을 밟고 올라가 창문에 올라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놀잇감이 발달수준에 맞지 않아 유아가 어려워 한다.
	<input type="checkbox"/> 유아 수에 비해 놀잇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다툼이 일어난다.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놀잇감의 놀이방법을 몰라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에 놀잇감이 충분히 없어서 유아가 서로 몸싸움을 한다.

출처: 조윤경, 김형미, 유연주, 장지윤 (2017). 특수아행동지도. pp. 260-261 발체 후 수정.

2) 공식적인 선별과정 이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



※ Tip 적용

-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직원들과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부모상담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통해 발달과 행동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변별해야 합니다.

① 영유아발달선별검사 확인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지속관리 필요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영유아를 확인합니다.

※ Tip 안내

- K-DST(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소아과 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검사도구입니다.
- 평가영역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핵심발달영역을 평가하고, 각 영역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근육운동	• 팔다리와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 • 목가누기, 기기, 걸기, 달리기, 차기 등
소근육운동	• 팔과 손, 손가락을 사용하는 미세한 운동과 사물의 조작 능력, 협응 운동 발달 • 잡기, 블록쌓기, 쓰기, 그리기, 자르기 등
인지	•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시정각적·통합적 지각, 사고, 추리, 비교와 분류, 기억 및 모방, 수 개념, 공간개념, 문제해결 등과 관련된 행동
언어	• 용말이, 말하기, 듣기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언어발달
사회성	• 타인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기술로 눈맞춤, 공동주시, 모방행동, 타인의 감정 파악, 규칙이 있는 놀이, 상상놀이 등의 행동
자조	• 아이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 식사하기, 대소변 가리기, 옷입고 벗기, 청결과 위생 등의 행동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사용 지침서. pp. 8-14

- 영유아발달선별검사의 발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호	빠른수준	• 발달선별검사 결과 각 발달영역별 발달수준이 빠른 편일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도래수준	• 발달선별검사 결과 도래수준에 해당하며, 정상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주의	추적검사 요망	• 해당영역의 발달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 다음 검진시기 이전에 해당 영역의 발달과정을 촉진하고 면밀히 관찰 후 재검사 실시
	정밀검사 필요 권고	•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전문의의 진단이 필요 ※ 조치사항: 전문적인 발달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소아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으로 의뢰하여 정밀평가와 필요시 중재 시행

※ 지속관리 필요: 선별검사대상군이 아닌 기존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평가결과

출처: <http://www.law.go.kr> [별표 7]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30~36개월용)				
수검자 성명		김 ○ ○	주민등록번호	
		150621-4*****		
신 체 계 측	키(cm)	몸무게(kg)	머리둘레(cm)	체질량지수(kg/m ²)
	90.2cm (13백분위)	12.3kg(20백분위)	47cm(15백분위)	15.1kg/m ² (40백분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small>* 백분위수란 같은 성별과 같은 나이의 영유아 100명 중에서 작은 쪽에 지보된 순서를 말합니다. 위의 그래프의 중앙곡선은 제100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차례대로 5, 10, 25, 50, 75, 90, 95 백분위수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small>				
신체	전신상태	양호	음부	양호
진찰	피부	양호	폐	양호
	머리/안면	양호	심장	양호
소견	눈	양호	복부	양호
	코	양호	생식기	양호
	귀	양호	사지	양호
	구강	양호	척추	양호
	경부	양호	신경학적 검사	양호
시간	분진	양호		
청각	분진	양호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전자미디어노출			
발달 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인지 사회성)			
종합 판정	주의			
소견 및 조치사항	키, 체중 증가 평균 이하. 인지능력과 사회성 추적 검사 필요함. * 다음 검진기간은 2018.07.20.까지입니다.			
요양기관 기호	37316***	결진기관명	○○ 소아청소년과의원	
검진일	20180521	면허번호	207**	강 ○ ○ (서명)

[그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Tip 안내

- 부모가 어린이집에 제출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와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꼭 살펴보세요.

※ Tip 안내

만약,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을 받았다면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아 조기치료와 재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직장가입자 11만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이하) :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확인서’ 지참
- 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진행(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수납후 환급)

출처: 보건복지부 (2020b).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07

② 관찰

가. 연령별로 발달의 적신호를 체크합니다.

→ 다음 항목에서 하나라도 체크되면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다른 기타 의심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상담지원 인력과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 해당 발달연령의 적신호는 이전 발달연령까지의 적신호를 포함합니다.

※ Tip 적용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대근육 운동 발달	100일	□목을 가누지 못해요.
	4개월	□앉을 수 없어요.
	5개월	□뒤집기를 못하거나 몸을 굴리지 못해요.
	7-8개월	□혼자 스스로 앉지 못해요.
	9-10개월	□불잡고 서지를 못하거나 잡아줘도 설 수 없어요.
	12개월	□걸기가 뻣뻣하고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져요.
	15개월	□걸을 수 없어요.
	만2세	□계단을 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해요.
	만2세 6개월	□두 발로 점프를 못해요.
	만3세	□한발로 잠깐 서있을 수 없어요.
	만4세	□한 발로 폴짝 뛰기를 하지 못해요.
만5세	□직선을 따라 뒤로 앞으로 걸을 수 없거나 5-10초 동안 한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소근육 운동 발달	3-4개월	□주먹을 꽉 잡고 난 뒤 펴지 못해요.
	4-5개월	□떨랑이나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해요.
	7개월	□물건들을 각 손에 쥐지 못해요.
	10-11개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해요.
	15개월	□넣고 빼는 것을 할 수 없어요.
	18-20개월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벗지 못해요.
	만2세	□5개 이상의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낙서하지 못해요.
	만2세 6개월	□책장을 한 장 넘길 수 없어요.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만3세	□8개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직선을 긋지 못해요.
	만4세	□10개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등그라미를 보고 따라 그리지 못해요.
	만5세	□블록으로 계단을 쌓지 못하거나 대각선을 따라 그리지 못해요.
언어 발달	5-6개월	□옹알이가 없어요.
	8-9개월	□‘다’, ‘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0-12개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옹알이 수준의 발성도 낮아요. □‘다다’, ‘바바’하고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8개월	□의미 있는 단어를 3개 미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2세	□간단한 두 단어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지 못해요.
	만2세 6개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3세	□주어+목적어+서술어 등 3개의 구문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만3세 6개월	□절반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만5세	□짧은 문장 안에서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인지 발달	2-3개월	□엄마를 인식하지 못해요.
	6-7개월	□떨어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8-9개월	□까꿍놀이에 흥미가 없어요.
	12개월	□숨겨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15-16개월	□인과관계 게임에 흥미가 없어요.
	만2세	□비슷한 것끼리 모을 수 없어요(예, 동물, 탈것 등).
	만3세	□자신의 이름(성을 포함)을 몰라요.
	만4세	□두 개의 선 중에서 더 짧은 것과 더 긴 것을 고를 수 없어요.
만5세	□색깔을 모르거나 문자를 하나도 몰라요.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만5세 6개월	□자기 생일이나 주소를 몰라요.
사회 정서 발달	3개월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아요.
	6-8개월	□노는 상황에 웃지 않아요.
	12개월	□달래기가 어렵고 접근하면 긴장해요.
	만2세	□화낼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 이유없이 차고, 물고, 소리를 잘 질러요. □의미있는 눈맞춤이 안되거나 또래들이나 성인하고 놀지 않아요.
	만3-5세	□계속해서 움직여요. 혼육에 저항해요.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아요.

출처: 노진아, 김연하, 김정민 공역 (2011). 영유아 특수교육. pp.144-446 / 부산시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0).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pp. 16-49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매뉴얼. pp. 8-9 에서 발췌 후 수정.

- 신생아~12개월

→ 가장 눈에 띄는 발달영역은 운동발달영역에서의 지연이지만, 대근육 운동발달은 정상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발달지연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소근육 운동발달지연이 함께 있거나 근긴장도의 이상, 원시반사가 늦게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발달지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몸이 뻣뻣하거나 관절을 굽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 몸이 너무 축 쳐져 있거나 움직임이 적다.
- 몸을 움직일 때, 한 쪽을 더 많이 사용한다.
-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신체접촉을 싫어한다.
- 한 번 울면 달래기가 어렵다.
-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
- 놀아줄 때 즐거워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 걸음마 시기~만2, 3세

말이 늦거나 발음이 나쁘다는 등 주로 언어발달의 문제가 주 증세로 나타나며 타인과 눈을 의미있게 맞추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표현언어 뿐만 아니라 수용언어가 함께 지연 되어 있으면 심각한 언어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행동문제를 체크합니다.

-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행동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영유아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이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유아가 하면 괜찮은 행동도, 다른 영유아가 하면 ‘문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마다 ‘문제’ 행동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서 부적응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문제는 주변 환경(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장소,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환경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부적절한 행동이 모두 행동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별이 필요합니다. 행동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 연령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ip 적용 《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예, 물기, 때리기 등)
- 일상생활, 사회적 상호작용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예, 그룹 활동 시 소리지르기, 주의산만 등)
- 학업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 같은 행동이나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이러한 행동문제가 장기간(3-6개월 이상) 지속될 때

※Tip 적용 《행동문제 체크리스트》

행동유형 《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한 가지를 작성합니다.	질문	평가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 높음
예, 그룹 활동 시 소리지르기	1. 부적절한 행동이 자주 발생하나요?					
	2. 부적절한 행동이 수용될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지속되나요?					
	3. 부적절한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나요?					
	4. 부적절한 행동이 나이에 적절하지 않나요?					

※ 행동문제가 나타날 때 관찰해보고, 정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해보세요.

다음 항목에서 4점 이상이 하나라도 체크되면 행동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woorii114.org> / "우리아이114"에서 발췌 후 수정

다. 자연스러운 환경인 일과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실시합니다.

→ 직접관찰과 간접관찰을 병행하여 최소 2주 정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실시합니다.

직접관찰	간접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행동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요약 □ 한 가지 사건만을 사실 그대로 요약 □ 시간 순서대로 제시 □ 관찰한 내용과 관련된 발달영역 기록 □ 행동이 발생한 맥락을 함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 관찰할 행동목록을 사전에 만들어 행동발생여부 기록 ※Tip 적용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 참고 □ 평정척도: 관찰에서 얻은 자료를 3점 척도나 5점 척도로 제작

※ Tip 적용

- 교사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고안하여 활용해보세요.

《직접관찰의 예-일화기록》

일화기록			
관찰유아	김**(여)	관찰자	김**
생년월일	20**년 3월 3일(43개월)	관찰시간	오전 8시 50분
관찰장면	월요일 등원 시 어린이집 현관	관찰일	20**년 5월 20일
관찰내용			
<p>**이가 현관문 앞에서 엄마의 무릎을 잡고 울고 있다. 엄마가 **이를 떼어내려고 하나, **이는 우는 목소리로 “싫어, 싫어”를 외치며 고개를 젖는다. 엄마가 억지로 떼어놓고 가버리자 현관문 앞에 누워버린다. 그리고는 두 발을 구르며 더 큰 소리로 운다. 등원하던 같은 반 또래유아가 **이에게 다가가자 발길질을 한다. 담임선생님이 내려와서 **이에게 다가가자 몸을 뒤로 빼다가 선생님이 안아주자 선생님 품에 안긴다. 선생님이 등을 토닥여주자 울음을 멈추고 선생님 품에 안겨 교실로 들어간다.</p>			
해석 및 논의(교사 평가)			
<p>**이는 어린이집에 입학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월요일 아침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한다. **이 어머니와 주말 동안 **이가 규칙적으로 생활했는지 확인하고 주말에 너무 많은 곳을 다닌 것은 아닌지, 잠을 늦게 자서 피곤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등원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떨어지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등원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p>			

《간접관찰의 예-평정척도 1》

관찰항목	아주 못함	못함	보통	잘함	아주 잘함
1. 놀잇감 정리정돈을 한다.					
2. 스스로 놀이를 선택한다.					
3. 친구들과 협동하여 놀이한다.					

《간접관찰의 예-평정척도 2》

수업참여 관찰 체크리스트					
유아명 :		관찰기간 :		교사 :	
참여태도	관찰내용	평정척도			
		전혀	조금	꽤	매우
긍정적 수업참여 A 14~21 (홀름함) B 7~13 (양호함) C 0~6 (심각함)	1. 교사가 말할 때 시선을 집중하여 듣는다.	0	1	2	3
	2. 책이나 칠판, TV 등 보라고 한 곳을 본다.	0	1	2	3
	3. 개별과제 수행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0	1	2	3
	4. 발표기회, 대표시연 기회 등이 주어지면 잘하지 못해도 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0	1	2	3
	5. 발표나 질문,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한다.	0	1	2	3
	6. 학습준비물을 챙겨 오고, 그것을 알아서 관리한다.	0	1	2	3
	7. 친구의 것을 보고 쓰거나 연명 및 발달 수준에서 보완된 형태로 수업에 참여한다.	0	1	2	3
평가)					
부정적 수업참여 A 0~6 (홀름함) B 7~13 (양호함) C 14~21 (심각함)	8.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고 들쭉거리다. (물건은 자주 떨어뜨리거나,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는 행동 등)	0	1	2	3
	9.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고, 관심 없고 지루해 한다. (허공이나 판 곳을 보거나, 졸거나 엎드려 있는 행동 등)	0	1	2	3
	10.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시간을 끈다. (교사가 독촉하면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음)	0	1	2	3
	11. 말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끼어든다.	0	1	2	3
	12. 주어진 과제를 빨리 대충 끝내고 자꾸 다했다고 하거나, 다음에 뭐할 건지 등의 질문으로 교사를 재촉한다.	0	1	2	3
	13.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답을 해주었는데도 자꾸 확인하는 등 지나치게 말이 많다. (주제와 상관없는 말 등)	0	1	2	3
	14. 자기 것보다는 친구가 하는 일이나, 다른 외부 자극에 더 관심이 많고 참견한다.	0	1	2	3
평가)					
수업방해 A 0~6 (홀름함) B 7~13 (양호함) C 14~21 (심각함)	15. 자리에서 이탈하여 돌아다닌다.	0	1	2	3
	16. 이상한 소리나 소음을 내어 수업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든다. (괴성, 고함, 감정조절이 어려운 난폭한 행동 등)	0	1	2	3
	17.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쏟거나 엎지르거나 하는 실수로 수업 전체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0	1	2	3
	18. 신변처리(용변, 콧물, 침 등) 문제로 수업의 흐름이 중단될 때가 있다.	0	1	2	3
	19.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관심이나 심술로 남을 툴툴 건드림, 물건을 마음대로 만짐)	0	1	2	3
	20. 관심을 끌기 위해 웃긴 행동, 말 또는 교사나 친구에게 치대는 식의 접촉 등을 하려고 한다.	0	1	2	3
	21. 남이 먼저 자기를 괴롭히고 공평하지 않다는 식의 불만으로 자주 시비가 붙는다.	0	1	2	3
평가)					
기타의견					

출처: 경기도교육청(2013). 영유아 특수교육 길잡이. p. 98

③ 부모면담

가. 부모면담 과정에서 영유아 관찰내용(관찰일지 등)을 공유합니다.

→ 선별과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담당교사는 해당 영유아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영유아 발달상태 기록을 공유합니다.

나. 선별 또는 심층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인지 관찰하고 부모면담을 진행합니다.

→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며 장애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단,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선별검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Q & A

Q 또래와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 영유아의 선별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부모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A 교사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바로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발달에 의심이 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개입이나 관련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기 초 면담에 그동안 관찰하거나 촬영한 영유아의 문제를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부모는 부정과 분노, 거부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교사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한 번의 면담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선별과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의 발달에 대해 간헐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당황할 뿐입니다. 이때 교사는 “또래는 이렇게 하는데, ○○이는 ~을 못한다.”라는 접근보다는 “○○이는 교실에서 이런 점을 어려워해요”라고 말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함께 방법을 찾는 과정임을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부모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부모에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가자는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2019). 장애아 통합보육 컨설팅 매뉴얼. p. 237

※ Tip 적용 《부모면담 이렇게 해보세요!》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어머니 시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더우셨지요? • 부모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이는 이번 주에 잘 지냈어요. 특히 **에 관심을 새롭게 보였어요. 집에서는 ○○이와 어떻게 지내세요? •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오늘 면담을 요청드린 이유는, ○○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데 ** 부분이 있어요. 제가 관찰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봐주시겠어요? ※ Tip 적용 ② 관찰 참고 • 부모가 읽어보면서 질문하면(예,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몰랐어요.” 혹은 “저도 이런 행동 때문에 사실 걱정했었어요.” 등) 교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답합니다. ※ Tip 적용 《부모 유형에 따른 상담 사례》 참고 • 교사: 집에서는 제가 관찰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았나요? 보았다면 어떻게 나타났나요? • 부모의 이야기(가정에서의 생활)를 경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제 생각에는 전문가에게 가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요. •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상담 가능한 전문가에 대한 관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찰 자료를 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등의 양육자와 의논 후에 다시 면담 날짜를 정합니다. - 어머니와 면담이 어려운 경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영유아를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시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 조윤경, 강지현 (2019). 장애영유아 교사를 위한 특수아진단 및 평가. p. 58

※ 교사는 어떤 부모를 만나든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장애위험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Tip 적용 《부모 유형에 따른 상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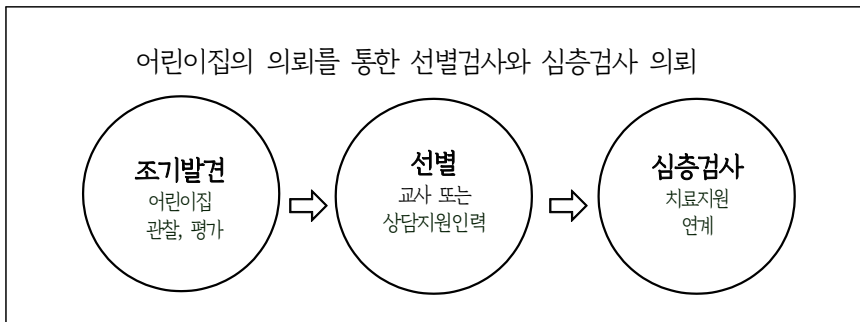
<p>자기 자녀에게만 신경 써주길 요구하는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상담이라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수용한 후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여 골고루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p>교육적/ 비교육적 소문에 민감한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와 내용, 근거 등은 가능한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신뢰감을 형성하세요. • 소문(SNS, 인터넷 등)이 사실일 경우에는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만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해주세요.
<p>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럽게 또는 한 번에 아이의 문제점을 전달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우선 형성한 후 하루 일과를 평이하게 이야기하듯 아이의 상황을 인식시켜 주세요. • 아이의 문제점이나 지도가 필요한 점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강점도 함께 전달해 주세요. • 교사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기 보다는 심리검사나 전문가의 평가라며 아이의 문제를 부모에게 알려주세요.
<p>책임을 전가하는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 각자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와 부모의 협조가 아이의 행동을 변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p>빠른 변화를 원하는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부모의 조급함에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의 성급함 속에 깔려있는 기대와 소망을 수용하면서 변화의 때와 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 자녀의 변화는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의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부모의 조급함은 오히려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p>비협조적인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행사와 자녀교육에 비협조적인 부모의 경우,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상담을 요청하고 어린이집의 교육방침, 교육내용과 목표, 근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비협조적이라 거리를 둔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p>무관심한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심한 것 같은 부모가 나중에 한꺼번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뚝뚝하다고 교사가 무심해서는 안됩니다. • 자녀를 매개로 자주 대화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부모의 의사를 때때로 살펴야 합니다.

출처: 유성희, 김현희 (2011). 단행본시리즈 영아반 전문과정. pp. 10-13 발췌 후 수정.

III.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1. 선별이란?

- 선별은 발달적 위험이 높은 영유아를 찾아내는 것으로 추가적 교육,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평가과정입니다.
 -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은 왜 중요할까요?
- 발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 Tip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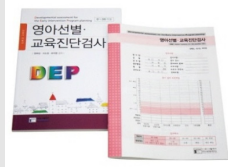
- 어린이집 교사도 선별검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 발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과정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과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담지원 인력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선별검사 실시와 부모상담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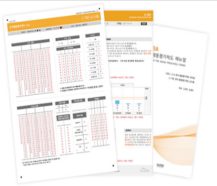
영유아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및 부모상담을 토대로 인지, 언어, 대소근육운동, 사회정서, 자조기술 등 영유아의 발달정도를 파악합니다. • 영유아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합니다.
선별검사 도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특성에 적합한 선별도구를 선택합니다. -검사방법, 검사상 유의점(예, 부모동의 여부)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선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검사로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찰-체크리스트 등 보완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한 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검사와 보완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영유아를 명칭붙임하거나 전형적인 영유아의 행동을 과도하게 병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가적 교육, 치료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부모에게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해 주세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발달상 어려움이 없는 경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60%; text-align: center;">발달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심층검사가 필요 없으며, 추후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실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text-align: center;"> <p>기관부적응</p> <p>영유아의 발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text-align: center;"> <p>장애위험 영유아</p> <p>영유아의 사회·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가 심각하여 발달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지원 •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지원 •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 • 부모상담후 심층검사의뢰 • 치료지원 연계 </div> </div>

※ Tip 안내 《영유아를 위한 발달선별검사》

- 영유아기 발달영역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달영역들 간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영역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 보다 심층적인 검사에 의뢰되기 전 체계적인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선별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불필요한 특수교육관련 검사에 의뢰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발달영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영역을 좀 더 깊이 있게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번의 평가로 발달선 상에 있는 영유아를 평가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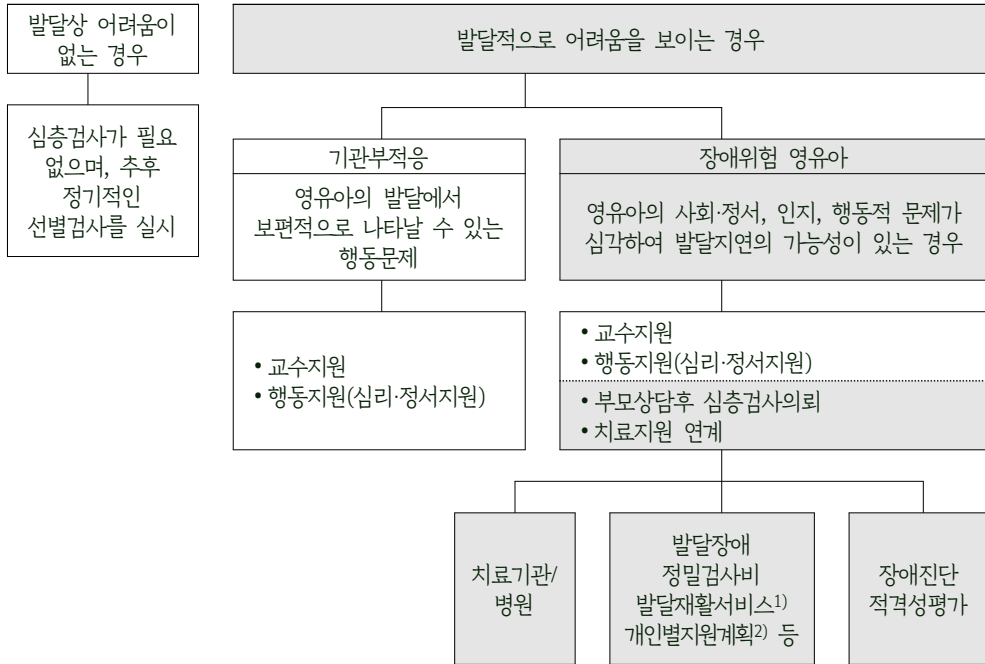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실시 형태	문항구성	검사도구
한국영유아 발달검사 개정판(K-DST)	만 4개월 ~ 71개월	5~10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문항(117개월 미만) • 48문항(18~71개월) -각 영역당 8문항 -6~7개월 발달평가부터 추가문항 -18~19개월부터 자조기술 추가 -정서행동문제 검사 질문추가 •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 	 <p>출처: https://hi.nhis.or.kr/</p>
영유아발달 체크리스트	0세~ 5세	20분	부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저작권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게 발간 • 생활연령에 맞는 체크리스트 찾기 • 유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지원 	 <p>출처: http://woorii114.org/</p>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 (DEP)	출생~ 36개월	20분	부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연구진에 의해 우리나라 영아들을 대상으로 표준화작업 거친 도구 • 344문항(0~36개월 안에서 8개의 월령 단계마다 문항수가 다름) •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의사소통/사회정서/기본생활 	 <p>출처: http://isorimall.com/</p>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실시 형태	문항구성	검사도구
한국판 영아발달검사 (K-DII)	6개월~30개월 미만	20분	부모 교사, 치료사	- 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본생활,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등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역별 문항은 각각 35문항씩 총 210문항임	 출처: http://www.tespia.kr/mall
한국판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KCDR-R)	0세~72개월	10~15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의 발달, 건강,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발달기능과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1차적 발달 선별검사 부모질문지에는 6개의 서술형 질문, 25개의 문제행동이 포함 사회성/자조행동/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언어영역 	 출처: http://isorimall.com/
한국유아발달 검사 (K-DIP)	6개월 ~ 29개월/30개월 ~ 72개월	20분	부모 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문항은 각각 40문항씩 총 240문항 인지/언어/사회정서/기본생활/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 가능한 한 부모와 교사가 상호 의사소통하면서 체크하되, 평소에 관찰한 행동을 정확하게 평정 	 출처: http://soritori.com/
한국판 아동발달검사 (K-CDI)	15개월 ~ 72개월	30~40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관찰을 통하여 영유아의 심도있는 발달적 정보를 얻는 체계적인 발달검사 사회성/자조행동/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표현언어/언어이해/글자,숫자/전체발달 등 9개 발달영역 총 300문항 청각능력, 건강, 성장,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 등과 같은 현재 아동의 발달에 대해 의심되는 증상과 문제를 체크 	 출처: http://isorimall.com/
한국형 영유아 기질 및 비전형 행동척도 (K-TAPS)	12개월 ~ 72개월	15분	부모 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요인, 50개문항으로 구성 고립행동(18개문항), 과민감성(9개문항), 과활동성(8개문항), 저반응성(10개문항) 영유아의 기질 및 비전형 발달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발달선별검사 발달적으로 역기능적인 행동 평가 	 출처: http://inpsy.co.kr/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실행 형태	문항구성	검사도구
영유아행동척도 (PKBS-2)	3세~6세	15~20분	부모 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기술 척도 : 적응 행동 및 긍정적 행동을 기술하는 34개의 항목으로 구성 • 문제행동 척도 : 영유아기 아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한 42개 항목으로 구성 • 보충하위 척도 : 자기중심성/충동성, 주의력문제/과잉행동, 반사회성/공격성, 사회적 위축, 불안/신체적 문제 등 아동의 정서 및 행동장애 증상 	 <p>출처: http://isorimall.com/</p>
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 (CBCL 1.5-5)	18개월~만5세	15~20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평가척도-문제행동척도 1) 증후군척도: 내재화(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외현화(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2) DSM진단척도: DSM정서문제, DSM불안문제, DSM전반적발달문제, DSM ADHD, DSM반항행동문제 • 언어발달검사 - 어휘력, 문장길이 	 <p>출처: http://aseba.co.kr/</p>
유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 (C-TRF)	18개월~만5세	15~20분	부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평가척도-문제행동척도 1) 증후군척도: 내재화(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외현화(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2) DSM진단척도: DSM정서문제, DSM불안문제, DSM전반적발달문제, DSM ADHD, DSM반항행동문제 	 <p>출처: http://aseba.co.kr/</p>

※ 유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 (C-TRF)자격요건: 검사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쳤거나, 정신과 혹은 기타 심리치료 기관에서 2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 그러나 매뉴얼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경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함.

2. 심층검사 의뢰



1) 심층검사(발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³⁾

- 발달평가를 위한 아동상담센터(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병원)가 있습니다.
- [아동발달센터] 영유아 및 청소년의 발달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영유아에 대한 상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소견이 필수적인 장애 진단(diagnosis)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 진단보다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상담하고 치료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1) 성장기 장애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계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함. 현재 진단받은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반에 재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영유아의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3) 출처: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매뉴얼. p. 11.

→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의 학습, 언어, 인지행동, 놀이, 사회성, 집중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진단(diagnosis)을 실시하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치료지원을 접근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정신 건강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평가 및 진단하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사회사업가, 특수교육 및 언어 재활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임상병리사가 팀을 이룬 다각적 치료적 접근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심층검사(발달평가) 및 치료지원 연계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으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 A

Q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등록기준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A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2020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 A

Q 발달이 느린 것 같아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상담이나 검사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으며(기밀기록으로 되어 있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병원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A

출처: <http://www.najumh.go.kr/>

Q & A

Q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 치료 전 가입한 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하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 사보험의 경우 2018년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및 보험료 차별금지)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등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긴밀하게 의논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A

-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순 상담은 상관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출처: <http://www.najumh.go.kr/>

Q & A

Q 아동상담센터에서 받았던 발달검사나 영유아발달선별검사에서 판정받았던 '심화평가 권고' 등으로 인해 아이의 결혼 및 취업, 군대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나요?

- 아이의 결혼 및 취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진료 기록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고, 있다고 해도 누가 볼 수 없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 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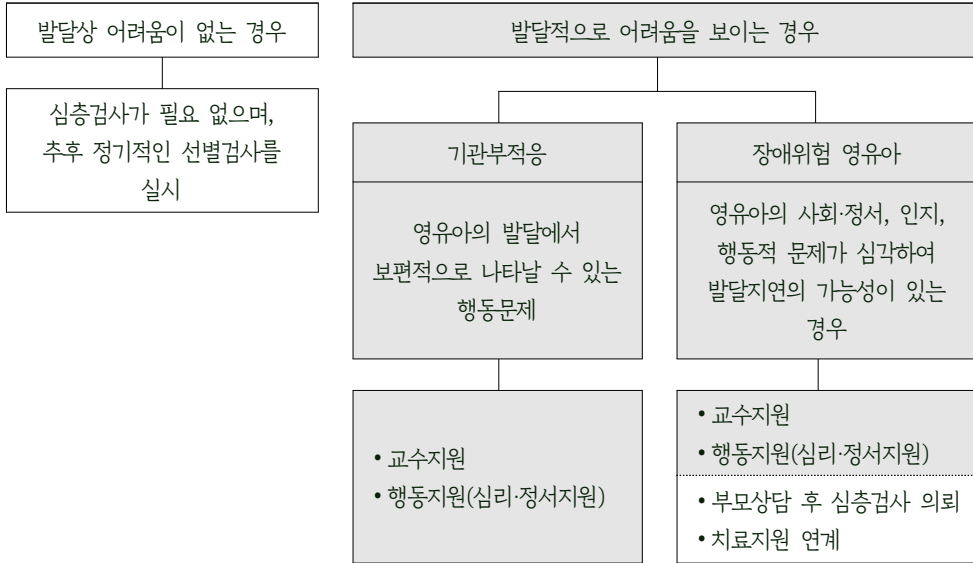
-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병사용진단서를 받아 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중증정신질환(중증의 조현병, 조울증, 중등도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증)이나 심한 운동성 질환의 경우, 군의관이 판단해서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료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군 면제를 원하거나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출처: <http://www.najumh.go.kr/>

- 이밖에도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로 인해 영유아가 발달의 어려움을 보인다면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으로 인해 영유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V. 맞춤형 발달 지원

- 자료수집 및 선별, 발달지원 관련 상담에 따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 Tip 안내

OECD(2008)에서는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 아닌 특수한 요구 교육(special needs education)으로 지칭하며, 특수한 교육적 요구라는 것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 교수자와 교수자료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자원과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는 ①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 ②정서 및 행동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③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결손으로 인한 영유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판별되지 않은 위험군 영유아들도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동일, 이대식, 손승현, 고희정, 2015).

1. 교수지원

- 실제로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영유아의 활동 참여와 반응 정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혹은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에 따라 영유아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는 교수자료,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수지원 등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교사는 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지원할 때 영유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영유아의 다양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교수지원》

교수지원 전략	전략의 예
유아주도 따르기	•유아가 흥미 있어 하거나 선택한 활동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행동을 모델링	•유아에게 필요한 목표를 파악한 후, 유아가 원하는 행동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거나 그 행동을 수행하는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기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만을 제공	•언어적 촉진: 유아가 행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말을 함 •몸짓 촉진: 유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손, 팔의 움직임과 이외 다른 움직임을 의미함 •모델 보여주기: 요구되는 행동을 보여줌 •부분적 신체도움: 부분적으로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여 유아의 움직임을 안내 •완전한 신체도움: 신체적으로 유아의 움직임을 안내
집단을 다양하게 구성	•다양한 발달적 수준의 유아를 집단으로 함께 구성
유아들이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	•유아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가능한 한 적은 도움으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말의 난이도를 조정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때, 교사가 사용하는 말의 난이도를 유아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조절. 단, 유아적인 용어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님 •발달 수준에 맞게 사물이나 사건의 특징 묘사하기
다양한 종류의 말을 사용	① 어휘와 개념 발달시키기 •혼잣말하기: 자신에게 소리를 내어 말하기; 무엇을 보고, 듣고, 하고, 느끼는지 이야기하기; 유아의 하루 생활 안의 활동, 물체, 사건을 묘사하기 (예, 저녁을 먹기 위해 씻으러 가야겠다.) •평행대화: 유아가 보고, 듣고, 수행하고,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기(예, 주안이가 연주랑 나눠 쓰고 있네)

교수지원 전략	전략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과 중복 사용하기: 다섯 개의 블록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블록을 세어볼래? • 인과관계를 이해하도록 격려하기: 노란색에 빨간색을 넣으니까 물감이 주황색으로 변했네. ② 문장구조 발달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유아가 말하는 것을 확장하여 말하기. 예를 들어 유아가 자신의 겹옷을 입은 후 ‘바깥에’라고 말하면 교사는 ‘바깥에 나가고 싶니?’라고 확장하기 • 유아가 말하는 것보다 약간 길고 조금 더 복잡한 문장 만들기: 유아가 ‘헤미 공?’이라고 하면 ‘그래, 그건 헤미 공이야.’라고 대답하기 • 복잡한 문장구조 시범 보기: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는 밖에 나갈거야.
선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로부터 언어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음 • 제한적인 선택 제공: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무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예, 영유아가 신발을 신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란 운동화를 신을까? 아니면 검정 운동화를 신을까? 하고 2~3개의 선택을 하도록 함. 신발을 신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다만 어떤 신발을 신을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모델 과정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응하면, 교사는 목표를 “한 단어나 구”로 강조하면서 언어로 반응하는 “모델”을 제공
“망각” 전략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일상 활동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를 생략하거나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일부러 제공하지 않음. •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나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예, 우유가 어디 있지?),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다른 문제 해결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눈에 보이지만 닿지 않는” 전략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완성하기에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물건을 유아의 시야에는 있지만 닿지 않도록 함. 유아들은 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언어와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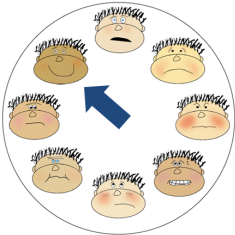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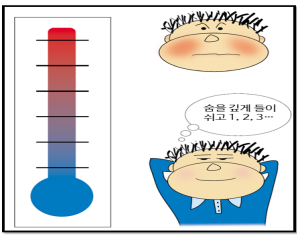
출처: 허계형, 정갑순, 이영철, 문현미 공역 (2008). 영유아를 위한 사정, 평가 및 프로그램 체계 4권. p. 49-55 발췌 후 수정.






2.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

- 영유아에게 상황에 적절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영유아가 기대행동(어린이집에서 보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약속이나 규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영유아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한 말은 일관성 있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지원-심리·정서 지원》

지원전략	전략의 예													
지원적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으로 정돈된 공간 • 잘 계획되고 예측이 가능한 교실로 구성 													
긍정적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영유아 간 일대일로 자주 대화하기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기 • 밝은 목소리로 영유아들과 눈맞춤을 하기 •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려고 할 때 경청하기 • 친사회적 성향을 자주 칭찬해주기 • 유아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5:1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상호작용 빈도와 부정적 상호작용 빈도에 대한 매직비율 - 한 번 훈육할 때마다 다섯 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져야 함 -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1이 되게 함 													
바람직하게 행동할 때를 포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훈육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만 제공 • 적절한 행동에 대해 언어적 칭찬이나 관심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야 함 •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하기 • 바람직한 것을 특정하여 말하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신체적 표현</th> <th style="width: 50%;">언어적 표현</th> </tr> </thead> <tbody> <tr> <td>안기</td> <td>“네가 _____ 하니까 좋다.”</td> </tr> <tr> <td>머리나 어깨 토닥이기</td> <td>“고마워! 네가 _____ 할 때 멋졌어.”</td> </tr> <tr> <td>미소, 윙크</td> <td>“대단해! 멋져! 잘했어!”</td> </tr> <tr> <td>하이파이브</td> <td>“잘하면 우리함께 _____ 할거야.”</td> </tr> <tr> <td>엄지 척</td> <td>“네가 _____ 하니 참 자랑스럽다.”</td> </tr> </tbody> </table> <p>※ 단,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을 떠올리게 하면서 칭찬하지 말 것.</p>		신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안기	“네가 _____ 하니까 좋다.”	머리나 어깨 토닥이기	“고마워! 네가 _____ 할 때 멋졌어.”	미소, 윙크	“대단해! 멋져!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하면 우리함께 _____ 할거야.”	엄지 척	“네가 _____ 하니 참 자랑스럽다.”
신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안기	“네가 _____ 하니까 좋다.”													
머리나 어깨 토닥이기	“고마워! 네가 _____ 할 때 멋졌어.”													
미소, 윙크	“대단해! 멋져!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하면 우리함께 _____ 할거야.”													
엄지 척	“네가 _____ 하니 참 자랑스럽다.”													
규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행동목록을 정리하고 분명한 규칙과 절차를 일관성 있게 시행 • 영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긍정적인 용어로 짧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안 돼’ 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것. 													

지원전략	전략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규칙(5개 이하) 수를 유지하기 •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 설정 •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규칙 만들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도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규칙에 대한 설명</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교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에 따른 바람직한 예 vs 바람직하지 않은 예시를 지도할 것 (예, 시범 보이기) •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강화 제공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피드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에 대해 역할놀이 해본 후 피드백 제공 </div> </div> </div> <p>※ 행동지도를 위한 모든 전략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고 타당한 전략을 사용해야 함.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전략은 사용해서는 안 됨.</p>
<p>사회·정서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정과 정서에 대처하도록 도와주기 •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를 구조화하기 - 친구와 나누어 사용하기 - 차례 지키기 - 도와주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지도 •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름을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미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 다양한 감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래들과의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나 갈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충동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를 사용해 감정의 범위를 설정하여 자신의 신체적·행동적 분노 신호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교사와 함께 작성해보고 화난 상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출처: http://csefel.vanderbilt.edu/resources/strategies.html</p>

지원전략	전략의 예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해결전략 가르치기</p> <p>• 화와 속상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표현방법은 인정할 수 없음은 알려줌.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제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 1. Recognize your feelings.</p> <p>화가났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 2. Stop your body.</p> <p>잠깐 멈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 3. Lie inside your shell and take three deep breaths.</p> <p>동그마디에 들어가서 숨을 세번 쉬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 4. Come out when you are calm and think of a solution.</p> <p>진정되면 나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data-bbox="336 701 761 749"> <p>출처: The National Center for Pyramid Model Innovations</p> </div> <div data-bbox="793 484 1142 720">  <p>출처: http://worldcreativeteachers.com/</p> </div> </div> <p>• 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이가 네가 만든 블록을 건드렸구나) → 신체적 단서 알아내기(○○이 얼굴이 빨개졌네) → 유아 입장에서 혼잣말 하기(혼자 숨을 크게 쉬자. 괜찮아) → 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사용(쉬는 시간 가지기, 10까지 세기)→자기 평가(너무 화가 났는데, 가만히 있었어. 정말 잘했어)</p>

출처: 곽현주, 배성현, 한남주, 김진희 (2019). 영유아교사를 위한 특수아동의 이해. pp. 224-227 / 박혜진 (2015).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PBS 중재: The Pyramid Model. pp.35-58 / 이효신, 방명애 공역 (2019). 유아기 정서행동장애. p. 107 발췌 후 수정.

※ Tip 적용 《행동유형별 구체적인 지도전략》	
행동유형	교사의 지도방안
자리이탈 및 서성이며 돌아다님	• 심부름보내기 등으로 휴식의 기회를 준다.
	• 서성은 움직임이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활동을 계획한다.
	• 조용한 곳에 유아를 앉힌다.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활동을 방해함	• 칭찬을 해주면서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게 한다(예, 대집단 활동 시 손을 들기).
	• 대집단활동 시 말을 하기 위해 손을 들면 칭찬해준다.
	• 유아에게 자기감독기술을 가르친다(예, 타이머가 돌아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교사의 말을 분명히 듣지 않음	•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가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말로 반복하게 한다.

행동유형	교사의 지도방안
일정 시간동안 과제에 머물거나 완성하기 어려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짧은 주의집중 시간에 맞추어 과제를 짧게 나눈다. • 한 번에 한 과제씩 제시한다. • 집중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준다(예, 책상을 푹푹 두드리거나 어깨 토닥이기) •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도래 옆에 앉힌다. • 과제에 집중하거나 완성하면 즉시 강화를 제공한다.
과제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를 짧게 나누어서 하게 한다. • 유아 스스로 자기점검을 하도록 순서도나 행동목록을 제시한다. • 과제하는 시간을 연장해 준다. • 유능한 도래를 정하여 옆에서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도록 한다.
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법을 정한다(예, 손들기, 도움 요청카드 들기) • 과제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각, 청각적 보조자료를 제공한다(예, 순서도,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 교사의 도움 빈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 과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 과제시도 행동을 강화한다.
시청각자극에 쉽게 산만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활동 시 유아를 앞에 앉힌다. • 산만하지 않은 장소에 앉히고 불필요한 시청각자극을 수정한다(예, 교구장 위 정리하기, 모빌 떼기) • 중요한 자극에 집중하도록 개인적인 신호를 준다. •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자료를 색으로 표시한다(예, 중요한 자료-노란색)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유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및 과제 시간을 줄인다. • 쉬는 시간을 자주 제공한다. •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한다. • 유아의 행동을 녹화한 동영상을 교사와 함께 보면서 생각해보게 한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문제해결전략을 가르친다. • 변화를 위한 노력에 보상을 제공한다.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를 일관성 있는 스케줄로 운영한다. • 하루의 일과를 시각적 자료로 게시한다. • 분명하게 정의된 활동을 제공한다. • 유아에게 일과나 구성원의 변화를 미리 설명하여 친숙하게 한다.

출처: 강옥려 역 (200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교사를 위한 지침서)

※ Tip 적용 《행동지도는 일관성있게 해주세요!》

- 어린이집 교사, 부모가 함께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영유아의 행동에 대처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영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행동문제에 대한 지원방법을 수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보를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 바로 공유해 주세요.

※ Tip 적용 《부정적인 지도전략은 사용하지 마세요!》

- 협박하기
 - 계속된 협박으로 교사는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말로 전달되는 암묵적인 메시지 또한 영유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교하기
 - 교사의 비교하는 말에 영유아는 자신의 실제 가치를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영유아의 능력이나 장점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부적절하게 칭찬하기
 - 교사가 남발하는 부적절한 칭찬으로 영유아는 교사의 칭찬에 별 의미를 두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지기
 - 교사가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별로 명확하지 않은 질문을 한 후, 영유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강조하기
 - 교사가 목소리 톤을 높여 강하게 말하면 영유아 입장에서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기도 합니다. 교사가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훈육할 때 교사로서 권위도 있고 학급 상황도 원만해집니다.
- 타임아웃 사용하기
 - 교실 구석에 서 있거나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타임아웃은 영유아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행동문제를 중지시키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출처: 조운주, 최일선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Q & A

Q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의 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는 성인의 간섭과 통제가 최소화되고 유아가 다양한 놀이환경과 만날 때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놀이상황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유아가 필요로 하는 놀이자료와 공간,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실에서 지켜야 할 간단한 규칙을 정하여 교실에 시각적 자료(사진, 그림 등)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A • 교사는 교실의 공간을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흥미를 보이지 않는 공간은 다른 공간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실환경을 점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요소를 환경에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러그나 카펫을 깔거나, 물리적 환경을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유아는 안정감을 느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단계		내용		역할	활용서식
I	영유아 발달의 이해	Q. 발달에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이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유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발달의 특성과 원리, 기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사	
II	기관 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Q. 교사 스스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영유아 및 양육환경 요인, 교사 요인,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체크합니다. 물리적 환경요인은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사	·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
		Q. 학급 내에 있는 영유아 중 또래에 비하여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발달지연이 필요한 영유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입소할 때 제출한 영유아건강검진 서류에서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교사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A3.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와 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관찰을 통해 체크합니다.	교사	·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 · 행동문제 체크리스트 · 직접관찰과 간접관찰
			A4. 부모면담을 통해 영유아 관찰내용을 공유합니다.	교사	
III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Q. 영유아의 사회·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가 심각하여 발달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어린이집 교사도 선별검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 발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부모상담 후 상담지원 인력에게 선별검사와 심층검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상담지원인력	· 영유아를 위한 발달선별검사
			A2. 상담을 통해 상담지원 인력은 심층검사 의뢰와 치료지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사, 상담지원인력	
IV	맞춤형 발달 지원	Q. 영유아의 발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A1. 교수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활동 참여와 반응 정도를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교사	· 교수지원
			A2. 영유아에게 필요한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을 적용합니다.	교사	· 행동지원(심리·정서 지원) · 행동유형별 구체적인 지도전략

3. 부모용 가이드북

가. 부모용 가이드북 목차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사용 가이드북(가이드북) 목차를 구성하였다. 교사용이 교사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한 데 반해, 부모용은 주제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스스로 읽어볼 수 있도록 교사용에 비해 난이도가 쉽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1〉 부모용 가이드북 목차

영유아 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우리 아이 지원 가이드북〉

1.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2.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나. 부모용 가이드북 내용

부모용 가이드북과 교육콘텐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부모용 가이드북은 A5 사이즈 핸드북의 크기로, 손에 들고 다니며 읽기에 부담없는 수준의 크기와 두께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부모님을 위한

<한 눈에 보는 우리 아이 지원 가이드북>

< 목차 >

- 1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 2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 궁금해요 >

- 우리 반에 쉽게 화를 내고 활동시간에 집중을 못해서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는, 좀 ‘아픈’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 아이는 4살인데 짧은 단어 외에는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어릴 적에 말을 늦게 시작했다고 듣긴 했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요?
- 집에서는 괜찮은데, 어린이집이나 밖에만 나가면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 걸까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시작하는 것이 늦어서, 혹은 같은 반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여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장애 위험 영유아란 특정한 선별검사로 선정된 영유아들로,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달지연이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영유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집단보육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경계선상 영유아’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편의상 ‘아픈 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령에 맞는 전형적 발달수준에서 벗어난 영유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⁴⁾. 전형적 발달을 보이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청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에 미루거나, 다른 친구들과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하위반에 편성되곤 합니다(2019년 현재, 경기도 내 2,274개소 3,358명). 그러나 단순히 어린 동생들과 있는 것으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4) 영유아건강검진의 한 종류로 시행되는 발달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이 2012년 80.5%에서 2018년 74.8%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추적검사 요망’, ‘심화 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 등 발달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유아 수는 2012년 2.5%에서 2018년 12%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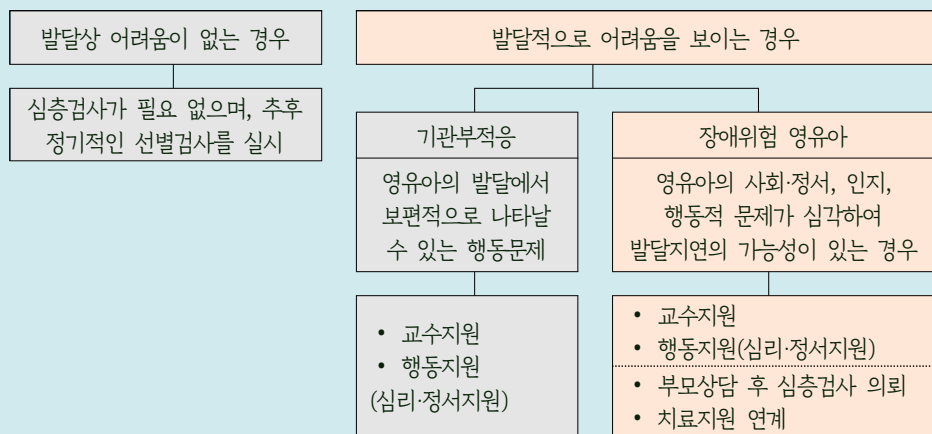
< 궁금해요 >

- 집에서 안 그러는데, 어린이집만 가면 아이가 배변실수를 해요. 이제 유아반인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음도 부정확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너무 적은 것 같다고 하세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심하신 건 아닐까요?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 다른 어린이집에선 그런 적이 없는데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의 경우,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적응행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상범주에서 발달이 느린 아이, 새로운 기관에 부적응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장애위험을 가진 아이와는 다르게 부모와 교사의 행동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위험 영유아의 경우, 일찍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수준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적절한 중재와 교육이 제공될 경우, 아이가 겪게 될 발달지연 수준을 줄이고 2차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아이의 발달상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조기선별검사가 중요합니다.

선별검사를 통한 전문적 발달지원 필요 영유아 구분



< 궁금해요 >

- 조금 이상하다고 괜히 진단 받았다가 장애판정이라도 나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나중에 결혼하거나 취업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냥 놔두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 교육을 받는다고 딱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아이에게 ‘아픈애’ 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신경이 쓰여요.

영유아기는 발달의 시작점으로 이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쉽게 상처 받고, 동시에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발달지연을 줄이고 전형적 발달에 보다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상범주의 발달이 가능했던 아이가 심각한 발달지연을 겪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조기선별을 통한 지원적 중재는 필수적입니다.

발달의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교육의 가능성과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합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이후 성장과정에서 행동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단계의 발달상의 결손은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는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 발달과 성장에도 다양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관 적응의 어려움이나 발달의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여러 이유로 적절한 중재를 빨리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2차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는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는 지원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영유아의 어려움을 발견, 선별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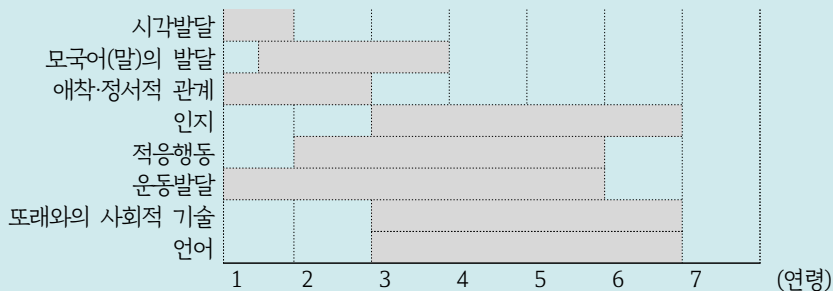
< 궁금해요 >

- 더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낮을 가리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 오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 기저귀 땐 지도 한참 됐는데, 동생 생긴 후로는 다시 실수가 늘어서 밤에 기저귀를 채워야 해요.

영유아의 발달은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시기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역이 다릅니다. 아이가 경험하는 발달수준에 따라 아이는 무언가를 만지거나 입에 넣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언어에 민감해지거나, 애정을 가진 상대에 대해 심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달이 늦어지거나, 기존에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변화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적 민감기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제1권 발달장애 양육지식 및 정보. p. 43 발체 후 수정

※ Tip 적용

- 한국 영유아발달선별검사도구(월령별)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30&>

< 궁금해요 >

- 누나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말이 너무 느려요.
- 쌍둥이인데도 한 명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다른 아이가 매일 치이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영유아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아이의 성별, 형제 순위, 가족구성, 또래관계 등은 아이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기질이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말합니다. 타고난 기질의 차이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도 서로 다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① 순한기질

- 대분 차분하고, 대부분 긍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다.
- 잠 자는 시간이나 음식 섭취와 배설 및 행동 등의 일과가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 새로운 경험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온화한 감정을 나타낸다.

② 까다로운 기질

- 생리적 기능에 있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다.
- 수면과 식사의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다.
-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와 의심을 보이며 음식습관도 까다롭다.

③ 느린(더딘) 기질

- 활동이 많이 없고,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 수면과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규칙성은 순한 영아와 까다로운 영아의 중간 정도이다.
-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만 천천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 궁금해요 >

- 먹는 양에 비해 너무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 약간 말을 더듬었다던데, 우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크면서 괜찮아지겠죠?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서비스입니다.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발달검사와 의사소견을 통해 아이의 발달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를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와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꼭 살펴보세요.

수검자 성명	성별	집	주인등록번호	150621-4*****
신체	키(cm)	몸무게(kg)	머리둘레(cm)	체질량지수(kg/m ²)
	90.2cm (13백분위)	12.3kg(20백분위)	47cm(15백분위)	15.1kg/m ² (40백분위)
계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신체	전신상태	양호	흉부	양호
신체	피부	양호	폐	양호
진찰	머리/안면	양호	심장	양호
진찰	눈	양호	복부	양호
진찰	코	양호	생식기	양호
소견	귀	양호	사지	양호
소견	구강	양호	척추	양호
소견	경부	양호	신경학적 검사	양호
시각	분진	양호		
청각	음성	양호		
건강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육, 영양교육, 전자기기이용			
발달 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인지 사회성)			
종합 판정	주의			
소견 및 조치사항	키, 체중 증가 평균 이하. 인지능력과 사회적 추적 검사 필요함. * 다음 검진기간은 2018.07.20.까지입니다.			
요양기관	37316***	검진기관명	○ ○ 소아청소년과의원	
검진일	20180521	면허번호	207**	강 ○ ○ (서명)

영유아발달선별검사의 발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준	결과
양호	빠른수준	• 발달선별검사 결과 각 발달영역별 발달수준이 빠른 편일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또래수준	• 발달선별검사 결과 또래수준에 해당하며, 정상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주의	추적검사 요망	• 해당영역의 발달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 다음 검진시기 이전에 해당 영역의 발달과정을 촉진하고 면밀히 관찰 후 재검사 실시
정밀 검사 필요	심화평가 권고	•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전문의의 진단이 필요

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궁금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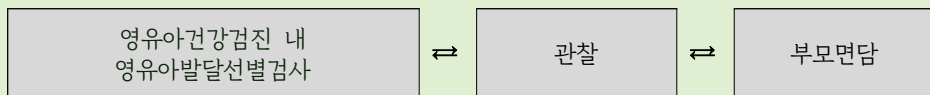
-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킨대요. 근데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세요. 집에서도 가끔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이의 장애위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공식적 검사 이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앞서 말한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부모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발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지속관리 필요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체크리스트와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맞는 전형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나치게 심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실시합니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교사와 부모가 면담을 가지고 아이의 알아낸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의 발달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변별해야 합니다.



○ 선별검사 실시 및 부모상담 지원 과정

→ 추가적 교육,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진단과정

《선별검사 실시 및 부모상담 지원》

영유아 특성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및 부모면담을 토대로 적응행동, 대소근육운동, 인지, 사회성 등 영유아의 발달정도를 파악 • 영유아의 의사소통 방법 조사
선별검사 도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특성에 적합한 선별도구 선택 • 검사방법, 검사상 유의점(예, 부모동의 여부) 등을 숙지
선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검사로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찰·체크리스트 등 보완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기
결과에 대한 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검사와 보완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 • 추가적 교육, 치료에 대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 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계 필요성 당부

우리 아이는 그냥 느린 걸까?

<부모와 교사를 위한 발달의 적신호 테스트>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대근육 운동 발달	100일	<input type="checkbox"/> 목을 가누지 못해요.
	4개월	<input type="checkbox"/> 앉을 수 없어요.
	5개월	<input type="checkbox"/> 뒤집기를 못하거나 몸을 굴리지 못해요.
	7-8개월	<input type="checkbox"/> 혼자 스스로 앉지 못해요.
	9-10개월	<input type="checkbox"/> 붙잡고 서지를 못하거나 잡아줘도 설 수 없어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걷기가 뻣뻣하고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져요.
	15개월	<input type="checkbox"/> 걸을 수 없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계단을 기어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해요.
	만2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두 발로 점프를 못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한발로 잠깐 서있을 수 없어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한 발로 폴짝 뛰기를 하지 못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직선을 따라 뒤로 앞으로 걸을 수 없거나 5-10초 동안 한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소근육 운동 발달	3-4개월	<input type="checkbox"/> 주먹을 꼭 잡고 난 뒤 펴지 못해요.
	4-5개월	<input type="checkbox"/> 딸랑이나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해요.
	7개월	<input type="checkbox"/> 물건들을 각 손에 쥐지 못해요.
	10-11개월	<input type="checkbox"/>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해요.
	15개월	<input type="checkbox"/> 넣고 빼는 것을 할 수 없어요.
	18-20개월	<input type="checkbox"/>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벗지 못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5개 이상의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낙서하지 못해요.
	만2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책장을 한 장 넘길 수 없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8개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직선을 긋지 못해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10개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동그라미를 보고 따라 그리지 못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블록으로 계단을 쌓지 못하거나 대각선을 따라 그리지 못해요.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언어 발달	5-6개월	□옹알이가 없어요.
	8-9개월	□‘다’, ‘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0-12개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옹알이 수준의 발성도 낮아요. □‘다다’, ‘바바’하고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8개월	□의미 있는 단어를 3개미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2세	□간단한 두 단어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지 못해요.
	만2세6개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3세	□주어+목적어+서술어 등 3개의 구문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만3세6개월	□절반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만5세	□짧은 문장 안에서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인지 발달	2-3개월	□엄마를 인식하지 못해요.
	6-7개월	□떨어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8-9개월	□까꿍놀이에 흥미가 없어요.
	12개월	□숨겨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15-16개월	□인과관계 게임에 흥미가 없어요.
	만2세	□비슷한 것끼리 모을 수 없어요(예, 동물, 탈것 등)
	만3세	□자신의 이름(성을 포함)을 몰라요.
	만4세	□두 개의 선 중에서 더 짧은 것과 더 긴 것을 고를 수 없어요.
	만5세	□색깔을 모르거나 문자를 하나도 몰라요.
	만5세6개월	□자기 생일이나 주소를 몰라요.
사회정서 발달	3개월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아요.
	6-8개월	□노는 상황에 웃지 않아요.
	12개월	□달래기가 어렵고 접근하면 긴장해요.
	만2세	□화낼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 이유없이 차고, 물고, 소리를 잘 질러요. □의미있는 눈맞춤이 안되거나 또래들이나 성인하고 놀지 않아요.
	만3-5세	□계속해서 움직여요. 훈육에 저항해요.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아요.

출처: 노진아, 김연하, 김정민 공역 (2011). 영유아 특수교육. pp.144-446 / 부산시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0).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pp. 16-49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매뉴얼. pp. 8-9 에서 발췌 후 수정.

< 궁금해요 >





- 우리 아이가 뭔가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어딜 가야하는지 헷갈리고, 아이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어디에 딱히 물어보기도 힘드네요.
- 주변에서 소개하는 기관에서 발달검사를 받으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괜히 손님 모으려고 괜찮은 아이도 이상하게 몰아갈 것 같고..

선별은 발달적 위험이 높은 영유아를 찾아내는 것으로 추가적 교육,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평가과정입니다.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문항을 이용하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병원에서 하는 정밀한 발달진단에 비해 훨씬 쉽게 아이의 발달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선별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상담지원 인력은 어린이집 교사 등에 의해 1차 조사된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영유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수집된 관찰자료를 평가하거나, 교직원에 의한 직접 검사가 어려운 어린이집을 방문해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발달선별검사>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기 전, 부모님과 선생님이 직접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기 발달은 영역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달영역 간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영역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검사도구
<p>한국 영유아발달검사 개정판 (K-DST)</p>	<p>만 4개월 ~ 71개월</p>	<p>5~10분</p>	 <p>출처: https://hi.nhis.or.kr/</p>
<p>영유아발달 체크리스트</p>	<p>0세~5세</p>	<p>20분</p>	 <p>출처: http://woorii114.org/</p>
<p>한국판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KCDR-R)</p>	<p>0세~ 72개월</p>	<p>10~15분</p>	 <p>출처: http://isorimall.com/</p>
<p>한국판 아동발달검사 (K-CDI)</p>	<p>15개월 ~ 72개월</p>	<p>30~40분</p>	 <p>출처: http://isorimall.com/</p>

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해요 >

- 선별검사는 받았는데,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린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달장애나 지원서비스처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동발달센터는 영유아 및 청소년의 발달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영유아에 대한 상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소견이 필수적인 장애 진단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장애 진단보다는 영유아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상담하고 치료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는 소아청소년의 학습, 언어, 인지행동, 놀이, 사회성, 집중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진단을 실시하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치료지원을 접근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정신 건강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평가 및 진단하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사회사업가, 특수교육 및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임상병리사가 팀을 이룬 다각적 치료적 접근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체계 구축〉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유치원 관찰, 선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유치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특수교육관련 상담	진단평가 의뢰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특수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별	발달 상담	3	지원 적격성 판정	4	5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및 선별	발달 상담 선별 및 발달지원 관련 상담	1) 장애위험 영유아 →교수지원 →행동지원 (심리·정서 지원) 2) 장애영유아 →부모상담 후 심층검사 의뢰 →보육 및 관련 특수교육서비스 안내	발달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발달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사후 관리
	어린이집 관찰, 선별 영유아건강검진 등 의뢰지원 체계를 통한 조기발견 및 교육적 조치	부모동의 상담사(전문가)를 통한 상담실시	1) 장애위험 영유아 2) 장애영유아	장애위험 영유아 →교수지원 →행동지원 (심리·정서 지원) 2) 장애영유아 →부모상담 후 심층검사 의뢰 →보육 및 관련 특수교육서비스 안내	장애위험 영유아 →교수지원 →행동지원 (심리·정서 지원) 2) 장애영유아 →부모상담 후 심층검사 의뢰 →보육 및 관련 특수교육서비스 안내	발달 진전도 모니터링 이후 지원방향에 대한 상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별상담 부모보고 선별검사도구 활용 및 활용지원 강화	개별상담 병원진단 및 치료지원	개별상담	개별상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으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 A

Q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

A 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등록기준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 A

Q 발달이 느린 것 같아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상담이나 검사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으며(기밀기록으로 되어 있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병원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Q & A

Q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 치료 전 가입한 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하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 사보험의 경우 2018년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 및 보험료 차별금지)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등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긴밀하게 의논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순 상담은 상관없습니다.
- 설계사들은 미고지시 알아낼 수 있으니 미리 말하라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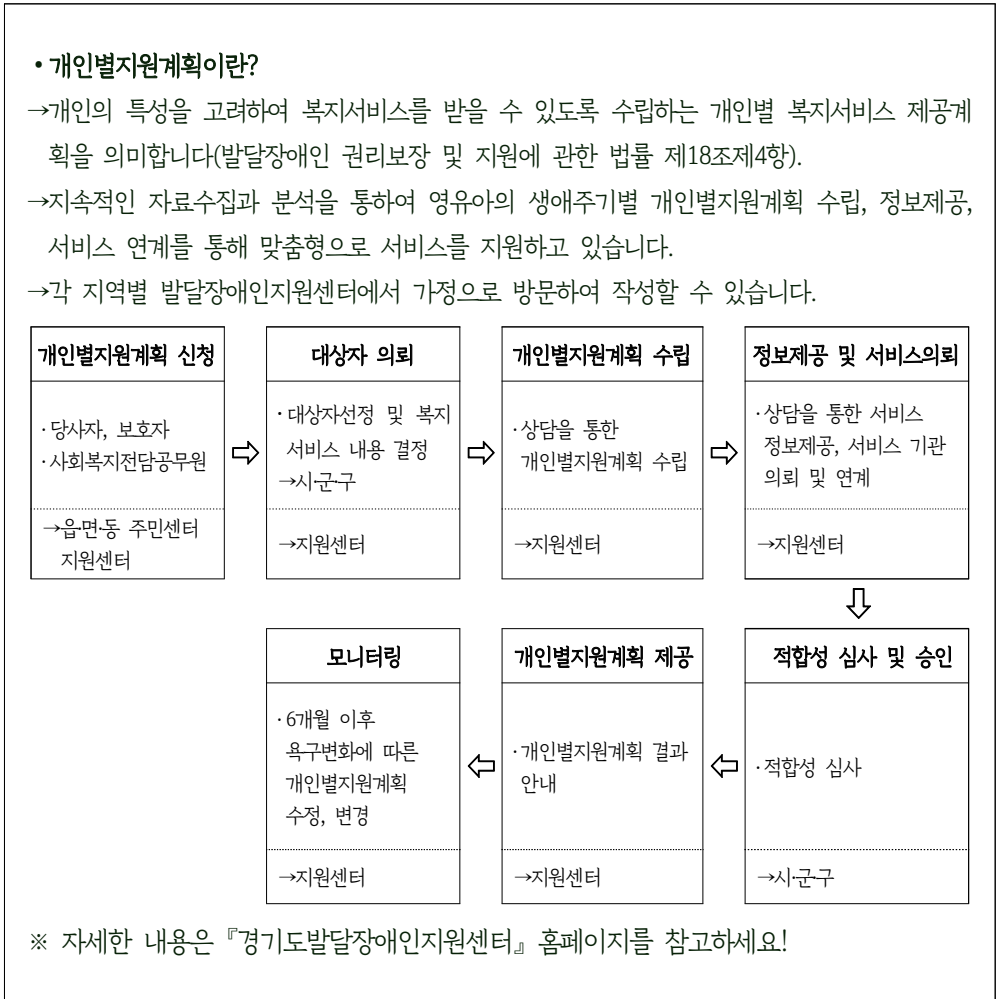
Q 아동상담센터에서 받았던 발달검사나 영유아발달선별 상에서 판정받았던 '심화평가 권고' 등으로 인해 아이의 결혼 및 취업, 군대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나요?

- 아이의 결혼 및 취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진료 기록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고, 있다고 해도 누가 볼 수 없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 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병사용진단서를 받아 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중증정신질환(중증의 조현병, 조울증, 중등도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증)이나 심한 운동성 질환의 경우, 군의관이 판단해서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료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군 면제를 원하거나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A

※ Tip 적용 《이렇게 해보세요!》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단받은 발달장애에 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반에 재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영유아의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궁금해요 >

-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잘 달래서 먹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애가 키가 안 크나봐요.
- 퇴근하고 피곤한데 아이가 문앞까지 뛰어나와서 말을 걸면 짜증부터 나오. 전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아이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끔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하는 경험 속에서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무리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과 서운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 부모를 위한 양육스트레스 검사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2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짹짹하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11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이 없다.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13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14	대체로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18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우 어려워한다.				
<p>내가 느끼기에 나는 (괄호 안에 O표시 해주세요)</p> <p>22</p> <p>1)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p> <p>2) 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p> <p>3) 보통 부모이다. ()</p> <p>4) 보통 부모보다 조금 낫다. ()</p> <p>5) 매우 좋은 부모이다. ()</p>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24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면 기분이 좋지 않다.				
2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31	우리 아이의 수면 습관과 식사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32	<p>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이 (괄호 안에 O표시 해주세요)</p> <p>1)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 ()</p> <p>2)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낀다. ()</p> <p>3) 생각한 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p> <p>4) 생각보다 조금 쉽다고 느낀다. ()</p> <p>5)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p>				
33	<p>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그 수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 (괄호 안에 O표시 해주세요)</p> <p>1) 1-3개 () 2) 4-5개 () 3) 6-7개 ()</p> <p>4) 8-9개 () 5) 10개 이상 ()</p>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우리 아이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출처: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 K-PSI-SF

본 검사는 생후 1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기르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최소 36점에서 최대 180점까지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며, 108점 이상이면 부모님께서 전체적으로 중간점수인 3점 이상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12번까지는 부모님이 느끼시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 13~24번까지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25~36번까지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나는 어떤 부모일까? >

부모는 아이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 친구들과도 친하다.					
2	10초 안에 아이의 친구 5명 이름을 딸 수 있다.					
3	아이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4	아이가 최근에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알고 있다.					
5	아이의 감정 변화를 읽을 수 있다.					
6	아이의 재능과 소질을 말할 수 있다.					
7	아이의 장점을 3가지 이상 딸 수 있다.					
8	아이의 현재 고민거리를 알고 있다.					
9	아이의 친구를 손님처럼 대한다.					
10	아이의 기를 살려주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					
11	아이와 1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2	친구나 동생 앞에서 아이를 꾸짖거나 별하지 않는다.					
13	아이들 앞에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는다.					
14	아이의 담임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다.					
15	아이와 식사할 때는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는다.					
16	내 기분에 따라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17	배우자의 친구나 친척과도 친교를 갖는다.					
18	아이 앞에서 배우자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19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20	의견이 달라도 아이 앞에서는 배우자를 존중한다.					

● ● (점수 분석) 종합계 내기

설문 체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총점 합계를 내 봅니다. (총점 = 문항 점수 x 문항수)

문항점수
보기

매우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아니다(1점)

(결과해석) 나의 부모 성적은?

86~100점 ▶

자녀가 성장한 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바로 나의 부모님입니다.”

70~85점 ▶

당신은 좋은 부모이다. 아이도 분명히 그렇게 느낄 것이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다.

55~69점 ▶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40~54점 ▶

아이에게 한 발짝만 더 다가가라.

당신이 상상한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이 아이로부터 밀려 올 것이다.

39점 이하 ▶

이 테스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 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자.

* 부모로서의 나를 돌아보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인지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 아래에서 좋은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처: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2014).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pp. 8-9.

< 궁금해요 >

-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건지, 누구랑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다 멀리 사시고, 근처에 또래 아이를 키우는 친구도 없어서 답답해요.
- 우리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같은 반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매번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없어서 우울해요. 누군가 이야기를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맞는 주변 사람들과 부모 자조모임을 만드세요. 부모 자조모임이란 부모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모임입니다. 자녀의 어린이집 어머니 모임이나 아파트 반창회, 동창회 등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양육 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특수한 질병이나 증상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아이의 증상, 부모의 상호작용이나 지원방법, 전문적인 치료 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집 근처 센터 찾기 >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

< 궁금해요 >

-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저랑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답답해요.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장애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선별과정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장애위험 진단 후에도 적절한 교육적 중재와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의 신뢰와 협조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과제이므로, 교사와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소통하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부모는 아닐까?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
<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 우리 아이에게만 신경을 더 써주길 원하는 부모
- 교육적/비교육적 소문에 민감한 부모 (SNS, 인터넷 상의 소문을 듣고 쉽게 동조하는 부모)
-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
-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
-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부모
- 비협조적인 부모
- 무관심한 부모

참고문헌

건강검진 실시안내[국민건강보험]. (2020. 11. 2). URL: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evlSlctnlSptUseTermInq.do>

- 경기도교육청 (2013). **영유아특수교육 길잡이. 특수교육 장학자료 제 2013-1호** 경기: 저자.
- 곽현주, 배성현, 한남주, 김진희 (2019). **영유아교사를 위한 특수아동의 이해**. 경기: 양성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2014).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8).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위한 협력체제 지원 가이드북**. 인천: 인천광역시 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 (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제1권 발달장애 양육지식 및 정보** 아산: 저자.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일부개정 2020. 4. 7]
- 김동일, 고은영, 고혜정, 김병석, 김은향, 김혜숙, 박춘성, 이명경, 이은아, 이제경, 정여주, 최수미, 최종근, 홍성두 (2016). **특수이상담**. 서울: 학지사.
- 김동일, 이대식, 손승현, 고혜정 (2015). 미래 학습장애 교육 디자인: 한국적 과제와 전망. **학습장애연구**, 12(2), 1-18.
- 김삼섭, 광정란, 김기룡, 김수연, 나경은, 도경민, 박소영, 백종남, 이주연, 정소영, 정윤지, 정재우, 오영석 (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우리, 박지연 (2016). 장애위험 아동, 누구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1(3), 1-32.
- 김현호, 광미정, 박연희, 박은주, 정윤희 (2019). **영유아발달**. 경기: 정민사.
- 문화원 (2014). **확장된 스킬스트리밍 교수의 학급차원 실행이 정서·행동장애 위험 유아의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 일반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옥, 이정은 (2007). 일반학급의 의뢰전 중재 적용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7(2), 83-109.
- 박혜진 (2015).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PBS 중재: The Pyramid Model. 유아특수교육에서의 행동중재-PBS와 ABA중재를 중심으로**,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35-58. 11월 28일. 서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기춘홀.

- 백선정 (2018).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수립 연구**(정책보고서 2018-01). 수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백선정, 배성현 (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정책보고서 2020-03). 수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0a). **2020 보육사업안내**.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 (2020b).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사용 지침서**.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예방과. 청주: 질병관리본부, 서울: 대한소아과학회
- 부산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0). **우리아이 발달이 걱정이세요?** 부산: 저자.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매뉴얼**. 수원: 저자.
- 여성가족부 (2018). **부모교육 매뉴얼 5권(영아부모)**. 서울: 저자.
- 온라인 개인 검색(인싸이트). (2020. 11. 5). URL: <https://inpsyt.co.kr/personal/item/list>
- 유성의, 김현희 (2011). **단행본시리즈 영아반 전문과정**. 서울: 꼬망세.
- 이소현 (2020). **유아특수교육 2판**. 서울: 학지사.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4332호, 일부개정 2016. 12.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6746호, 일부개정 2019. 12. 10]
- 정희정, 이재연 (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 조운주, 최일선 (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서울: 창지사.
- 조운경, 강지현 (2019). **장애영유아 교사를 위한 특수아 진단 및 평가**. 경기: 공동체.
- 조운경, 김형미, 유연주, 장지윤 (2017). **특수아 행동지도** 경기: 공동체.
- 진단평가도구/발달, 운동, 작업[아이소리몰]. (2020. 11. 14). URL:
<http://www.isorimall.com/catalog/ProdList.asp?cate1=1000&cate2=1014>
- 클릭, 간편 발달체크[우리아이 114]. (2020. 11. 14). URL:
http://woorii114.org/development/test_online.jsp
- 특수아동진단검사[소리토리]. (2020. 11. 14). URL:
<http://soritori.com/product/%ED%95%9C%EA%B5%AD%EC%9C%A0%EC%95%84%EB%B0%9C%EB%8B%AC%EA%B2%80%EC%82%AC-k-dip/2020/category/85/display/1/>
- 특수아동/발달장애[테스피아]. (2020. 11. 11). URL:
http://www.tespia.kr/tp_mall/mall_list.asp?c1=7
- 한국보육진흥원 (2019). **장애아 통합보육 컨설팅 매뉴얼**. 서울: 저자

- Bricker, D., & Pretti-Frontczak, K. (2008). **영유아를 위한 사정, 평가 및 프로그램 체계 4권** [AEPS Measurement for Three to Six Years. Assessment, Evaluation, and Programming System for Infants and Children, Volume 4.] (허계형, 정갑순, 이영철, 문현미 공역). 서울: 굿에듀북. (원출판년도 2002).
- CBCL 1.5-5 유아 행동평가척도 부모용[ASEBA]. (2020. 11. 9). URL: <http://aseba.co.kr/info/05.aspx?scode=CBCL15>
- CBCL 1.5-5 유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ASEBA]. (2020. 11. 9). URL: <http://aseba.co.kr/info/05.aspx?scode=CTRF>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2). A developmental and clinical model for the prevention of conduct disorder: *The FAST Track Progra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4), 509-527.
- Culp, D. J., Latchney, L. R., Fallon, M. A., Denny, P. A., Denny, P. C., Couwenhoven, R. I., & Chuang, S. (2004). The gene encoding mouse Muc19: cDNA, genomic organization and relationship to Smgc. *Physiological Genomics*, 19(3), 303-318.
- Dendy, C. A. Z., & Zeigler, A. (200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교사를 위한 지침서)**. [A Bird's-eye View of Life with ADD and ADHD: Advice from Young Survivors : a Reference Book for Children and Teenagers]. (강옥려 역).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원출판연도, 2003)
- Dunlap, G., Iovannone, R., Kincaid, D., Wilson, K., Christiansen, K., Strain, P., & English, C. (2010). *Prevent-Teach-Reinforce: The School-Based Model of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Brookes Publishing Company. PO Box 10624, Baltimore, MD 21285.
- Fields, M. V., & Fields, D. (2020). **아동생활지도: 구성주의적 접근**. [Constructive guidance and disciplin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이희영, 허승희 공역). 파주: 21세기사. (원출판연도, 2006)
- Foster, E. M., Olchowski, A. E., & Webster-Stratton, C. H. (2007). Is stacking intervention components cost-effective? An analysis of the Incredible Years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11), 1414-1424.
- Holland, M. L., Malmberg, J., & Peacock, G. G. (2019). **유아기 정서행동장애 제2판**.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young children: Effective interventions in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years. Guilford Publications (2nd ed.)]. (이효신, 방명애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출판연도, 2017).

Incredible Years® Series. The Incredible Years, 2020년 7월 9일 접속, <http://www.incredibleyears.com/about/incredible-years-series/>

Kitzman, H., Olds, D. L., Henderson, C. R., Hanks, C., Cole, R., Tatelbaum, R., McConnochie, K. M., Sidora K., Luckey, D. W., Shaver, D., Engelhardt, K., James D., & Barnard, K. (1997). Effect of 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ation by nurses on pregnancy outcomes, childhood injuries, and repeated childbearing: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78(8), 644-652.

Prinz, R. (2014). *Scaling Family-Focused Preventive Interventions: The Triple P System*. Presentation at the Workshop on Strategies for Scaling Tested and Effective Family-Focused Preventive Interventions to Promote Children'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Health, April 1-2, Washington, DC.

Pyramid Model Overview. The National Center for Pyramid Model Innovations. 2018년 8월 26일 수정, 2019년 8월 3일 접속, <http://pyramidmodel.org/services/online-training>

Spodek, B., & Saracho, O. N. (1994). *Dealing with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Longman Publishing Group.

The Turtle Technique. The National Center for Pyramid Model Innovations. 2019년 8월 3일 접속, https://challengingbehavior.cbcs.usf.edu/docs/TurtleTechnique_steps.pdf

Umansky, W., & Hooper, S. R. (2011). **영유아 특수교육**.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Merrill. 노진아, 김연하, 김정민 공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연도 2009)

Webster-Stratton, C., & Reid, M. J. (2003). *The incredible years parents, teachers and children training series: A multifaceted treatment approach for young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In A. E. Kazdin & J. R. Weisz (Eds.),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 224-240). The Guilford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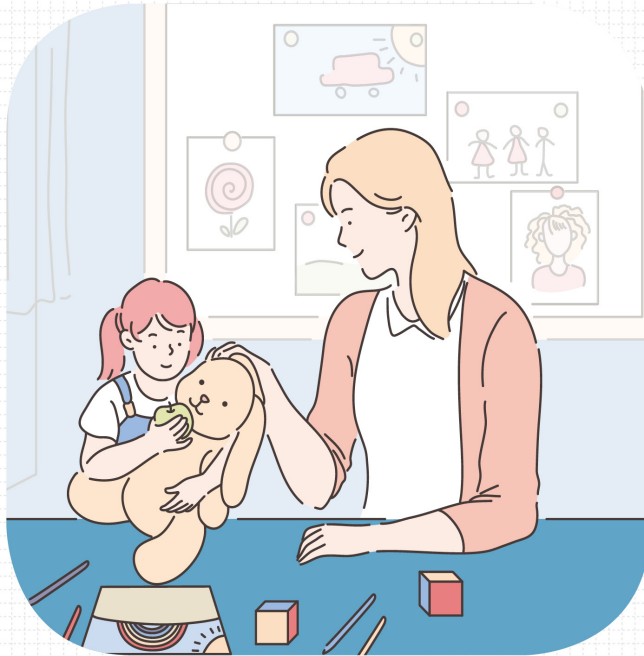
부 록

1. 교사용 매뉴얼
2. 부모용 매뉴얼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GYEONGGI-DO FAMILY&WOMEN RESEARCH INSTITUTE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교사를 위한
한눈에 보는
장애위협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CONTENTS

01 영유아 발달의 이해

1. 영유아 발달의 특성과 권리 04

1) 영유아 발달의 특성 04

2) 영유아 발달의 권리 05

3) 기질 06

02 기관부작용/장애위협 영유아 발견과 선별

1. 기관부작용/장애위협 영유아 조기발견 방법 08

1) 교사 스스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확인 08

2) 공식적인 선별과정 이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 ... 11

03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1. 선별이람? 26

2. 심층검사 실시와 부모상담 과정 27

3. 심층검사 의뢰 31

1) 심층검사(발달평가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31

2) 심층검사(발달평가지) 및 지도지원 연계 32

04 맞춤형 발달 지원

1. 교수지원 36

2. 행동지원(선과 정서지원) 38

○ **요약본 소개** 지원 가이드북 제작 필요성과 활용방법

- 발달의 초기 단계인 '영유아'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교육의 가능성과 기초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발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는 영유아기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 발달과 성장에도 다양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관 적응의 어려움이나 발달의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여러 이유로 적절한 중재를 빨리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2차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는 영유아의 어려움을 발견, 선별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장애위협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선별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부모와 교사의 협조 하에 적절한 지원과 교육적 접근을 시행할 수 있는 첫 단계로 관내에 보는 장애위협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 우리 반에 장애위협 영유아가 있어도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 빨리 치료나 진단을 받아야 영유아에게도,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아이마다 개인차가 다양하니까요. 제가 조금씩 지도하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도하는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지도할 수 있는 실행지침은 있을까요?

- 본 지원 가이드북은 이별 고민을 가진 현장 교사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지원 가이드북은 다양한 발달적 차이가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는 교사,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학교의 모든 영유아를 위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 학교에 있는 모든 영유아는 저마다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지원 가이드북으로 기관 부적응(행동문제)과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교사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원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지원방법을 적용해보면 작은 감동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지원 가이드북의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영유아 발달의 이해



영유아 발달의 특성과 원리

1) 영유아 발달의 특성

-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영유아기에는 발달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므로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발달은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시기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역은 다릅니다. 영역별로 주요 발달시기를 기억하고, 해당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① 영유아의 발달영역은 인지, 언어, 대근육 소근육운동, 사회정서, 자조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합니다.
 - ② 발달은 각 발달영역들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도레에게 어떻게 아픈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 스스로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도레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교사는 발달영역과 관련된 발달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비진정적 단상을 이해하여, 발달상의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발달원리는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3-2>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적 민감기

영역	1	2	3	4	5	6	7
시간/발달							
도덕(행)의 발달							
애착·정서적 관계							
인지							
적응행동							
운동/발달							
도레와의 사회적 기술							
언어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영유아 양육 권라집이 제1권 발달장애 양육지침 및 정보, p.43. 발해 후 수정.

4.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아 발달 영역의 지원 가이드북>

2) 영유아 발달의 원리

- ①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②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발달의 전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얻을 수 있게 된 다음 사게 되고, 사게 된 다음 단계 됩니다.
- ③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머리 부분이 몸통이나 팔다리 보다 먼저 발달하고, 팔, 손목, 손, 손가락의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 ④ 발달은 변화와 통합의 과정입니다. 모든 행동이 미분화되어 전체적인 반응을 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정밀한 행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감각운동 기관을 활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⑤ 발달은 계속되는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간이 있다가하면 심리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 ⑥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영유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Tip 적용

한국 영유아발달선별검사 도구(영발검)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간강진/>
 나의건강관리 > 건강관리 실시간내 > 영유아건강검진 > 발달선별검사지 사용기간조회/검사지 서식



3) 기질

타에 먼저 가리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말하며, 영유아 행동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양식을 의미합니다(김현호, 권미정, 박연희, 박은주, 정은희; 여성가족부, 2018)

① 유산 기질

- 대부분 친분하고, 대부분 긍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다.
- 충분한 수면으로도 행복하다. 혼자서도 장난감을 갖고 잘 놀며 새로운 것이나 낯선 사람한테도 쉽게 적응을 잘하고 당황하지 않는다.
- 장치는 시간이나 음식 섭취와 배설 및 행동 등의 일과가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 새로운 경험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온화한 감정을 나타낸다.

Tip 적용

종종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감정 상태에 물어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까다로운 기질

- 생리적 기능에 있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다.
- 수면과 식사의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다.
-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와 의심을 보이며 음식섭취도 까다롭다.
- 정서적 쾌락 눈물 등 큰기 진부부터 울며 욕구 좌절에 대한 부정적인 기분을 강렬히 나타낸다.

Tip 적용

규칙적인 일과를 강요하기 보다는 정서 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영유아에게는 조금씩 일어난 일들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③ 느린(더딘) 기질

- 새로운 자극에 회피적이고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 활동이 많지 않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기분이 부정적이다.
-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까다로운 영유아와 비슷하지만 약하게 반응하고 활동량이 적다는 점이 다르다.
-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만 전전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 수면과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규칙성은 순한 영아와 까다로운 영아의 중간 정도이다.

Tip 적용

느리고 재촉하거나 다그치면 영유아는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자질 관심을 보이며 적응해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기질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이나를 구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기질과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양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질은 부모와 교사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양육태도 역시 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면 부모·효과적인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Tip 안내 <교사의 자기애>

- 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다른 건물을 찾거나 교재의 수준을 수정하여 학습상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교사의 태도는 영유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교사는 영유아를 수용하는 상황의 범위가 넓을 것입니다.
- 교사가 시그널은 수용을 생각한다고 해서 영유아들이 모두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유용한 교사의 행동을 보아주시기 위해서 영유아들이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교사의 개인적 욕구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욕구를 수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02

기반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기반부적응/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방법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교사 스스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지 확인

→ 영유아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면서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합니다.

영유아 및 양육관련 요인

- 신체적 건강상태
-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껴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요구
-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면담을 통해 기증에 시도 정서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잘못된 학습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잘못된 행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에게 대체할 만한 행동을 가르치고 행동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영유아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할 때
- 어떤 과제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능력 수준과 특성에 맞게 자세히 안내하고 친절하며 정확한 지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족의 기능과 정서적인 상태
-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 어머니와 아버지 간 불화, 양육자 우울감(슬픈 감정, 자기비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영유아에게 행동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8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교사 요인

- 교사가 자신의 교육방법 효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할 때
- 영유아의 발달영역별 행동기술에 대해 잘 모릅니다.

Tip 적용

본 가이드북(언어발달 발달의 적신호) 참고
본 가이드북(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행동문제 체크리스트》 참고
• 작은 단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자료를 기록합니다.

Tip 적용

본 가이드북(적절관찰-일화기록) 참고

- 지도에 대한 속도, 시기, 방법이 부적절할 때
- 영유아가 준비되지 않은 불리 조건에 불리 반응을 주고자 하거나, 어떤 방법이 좋다고 하여 영유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기보다는 영유아의 준비도에 맞게 속도와 순서를 조정합니다.
- 작은 단계로 나누어 서서히 접근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전 영유아의 준비도를 다시 점검하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교사의 장사상태
- 영유아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가 자주 화를 내거나 영유아의 사소한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영유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교사 자신도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교수 효능감에 문제가 생기며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영유아에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방법과 중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리적 환경적 요인

- 환경적 요인이 활동참여에 방해가 될 때
- 공간이 좁거나 혼잡하면 영유아의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체적 안전성,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하여 물리적 환경을 복원합니다.

Tip 적용

본 가이드북(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체크리스트) 참고

출처: 강동필 외 (2016), 특수교육팀 pp. 367-368 / 이희연, 허승희, 공덕 (2020), 아동생활지도: 구성주의적 접근, pp. 130-135 발제 후 수정.

2) 공식적인 신별과정 이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영유아의 발달상태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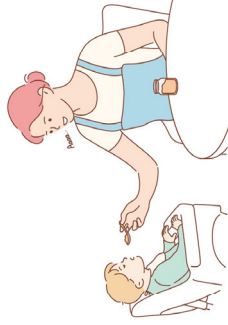


Tip 1. Tip 적용

-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직원들과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일시적인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부모상담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통해 발달과 행동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반복해야 합니다.

① 영유아발달신별검사 확인

- 영유아건강진단에서 시행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청, 지속 관리 필요에 대한 의사소권이 있는 영유아를 확인합니다.



Tip 2. Tip 적용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

→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행동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점검사항
교실 크기	<input type="checkbox"/> 복은 교실 환경이 크고 적은 공간으로 나누어 있지 않아 유아기 때문이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전체가 유아 수에 비해 협소해서 자꾸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또래의 놀이감을 잃어뜨린다. <input type="checkbox"/> 교실 내에서 이동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유아가 장애물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놀이 공간 구성	<input type="checkbox"/>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과 시끄럽고 동적인 공간이 인접해 있거나 구분없이 있어 유아가 활동에 혼동하지 못한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에 너무 여는 공간과 구상하여 공간이 좁다. <input type="checkbox"/>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과 시끄럽고 동적인 공간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실이 시끄럽다.
소음	<input type="checkbox"/> 동적인 공간의 소음을 줄여줄 커튼, 가림판 등이 없어 소음이 다른 공간에 그대로 전달된다. <input type="checkbox"/> 공간에 따라서 차광의 강도를 조절하는 부분 조명등, 커튼, 블라인드 등이 없다.
차광 및 조명	<input type="checkbox"/> 적사광선이 교실내 비추어 유아의 시력이 불편하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온도가 높아 유아들이 흥분해 있다.
온도 습도	<input type="checkbox"/> 교실의 습도가 너무 높아서 유아들이 예민하다. <input type="checkbox"/> 환경에 지나친 온채사용으로 유아가 피로하거나 자극받는다.
교구 의자	<input type="checkbox"/> 교수, 놀이감, 자료가 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보다 높고 있어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교구장 및 개연성에 유아가 스스로 잡고 정리할 수 있는 서진 그림 표시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석, 쿠션, 인력마, 흔들리지 등이 없다.
놀이감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교구장을 밟고 놀이가 장면에 몰려 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놀이감이 발달수준에 맞지 않아 유아가 어려워한다. <input type="checkbox"/> 유아 수에 비해 놀이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다용이 일어난다. <input type="checkbox"/> 유아가 놀이감의 놀이방법을 몰라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교실에 놀이감이 충분히 없어서 유아가 서로 몸싸움을 한다.

출처: 조은의 김영미, 유민주, 정지은 (2017). 특수아행동지도, pp. 260-261. 발해학수정

10 교사별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Tip Tip 안내

- K-DST(한국영양개발실태조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영양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검진 도구입니다.
- 평가범역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언어, 사회성, 자조성 등 총 6개의 핵심발달영역을 평가하고, 각 영역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근육운동	• 팔다리와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 • 뛰기, 누기기, 걷기, 달리기, 자기 돌
소근육운동	• 목과 손, 손가락을 사용하는 미세한 움직임과 사물의 조작 능력, 협응 운동 발달 • 잡기, 풀기, 끼우기, 끼우기, 그리기, 자르기 등
인지	•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시정각성, 통찰적 지각, 사고, 추리, 비교와 분류, 기억 및 외 모방, 수 개념, 공간개념, 문제해결 등 관련된 행동
언어	• 용어, 말하기, 듣기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언어발달
사회성	• 타인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기술로 눈맞춤, 공동주시, 모방행동, 타인의 감정 파악, 규정이 있는 놀이, 상상놀이 등의 행동
자조	• 아이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 식사하기, 대소변 가리기, 옷입고 벗기, 정리과 위생 등의 행동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한국영양개발실태조사 사용 지침서, pp. 8-14

영유아발달실태조사의 발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 영양 영양	• 발달실태조사 결과 각 발달영역별 발달수준이 빠른 편일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추진 경사 오양	• 발달실태조사 결과 또래수준에 해당하며, 정상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해당영역의 발달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 다음 검진시기 이전에 해당 영역의 발달과정을 촉진하고 만발의 진척 후 재검사 실시
심화 평가 필요 검고	•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발달실태조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정상발달 평가를 위해 발달전문가의 진단체야 필요 ※ 조치사항: 전문적인 발달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소아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으로 의뢰하여 정밀평가와 필요 시 중재 시행

※ 관련자료 필요: 발달검진대상영아인 기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평가결과 출처: <http://www.lawgokr.com> (법정기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공개장기)

Tip Tip 안내

- 부모가 어린이집에 제출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발달평가 결과의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꼭 살펴주세요.

[그림 1]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Tip Tip 적용

만약,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고교 판정을 받았다면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아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이듬해어수급권자·자생위계층: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자정가임자 11만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이하):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확인서 지참
 - 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진행(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수납후환급)

출처: 보건복지부 (2020b).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p. 107

- ② **관찰**
 가. 연령별로 발달의 적신호를 체크합니다.
 → 다음 항목에서 하나라도 체크되면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다른 기타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상담지 원 인원과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 해당 발달연령의 적신호는 이전 발달연령까지의 적신호를 포함합니다.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대근육 운동 발달	100일	<input type="checkbox"/> 엎드릴 수 없어요.
	4개월	<input type="checkbox"/> 앉을 수 없어요.
	5개월	<input type="checkbox"/> 독립기지를 유지하거나 몸을 굴러가지 못해요.
	7-8개월	<input type="checkbox"/> 혼자 스스로 앉지 못해요.
	9-10개월	<input type="checkbox"/> 똑잡고 서지를 못하거나 잡아줘도 설 수 없어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걸기가 흔해지고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져요.
	15개월	<input type="checkbox"/> 걸을 수 없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계단을 기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해요.
	만2세 6개월	<input type="checkbox"/> 두 발로 점프를 못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한 발로 점프하기를 하지 못해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한 발로 훌쩍하기를 하지 못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직선을 따라 뒤로 앞으로 걸을 수 없거나 5-10초 동안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소근육 운동 발달	3-4개월	<input type="checkbox"/> 주먹을 꼭 잡고 난 뒤 펴지 못해요.
	4-5개월	<input type="checkbox"/> 머양이나 장난감을 응취하지 못해요.
	7개월	<input type="checkbox"/> 물감들을 각 손에 하지 못해요.
	10-11개월	<input type="checkbox"/> 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작은 물건들을 잡지 못해요.
	15개월	<input type="checkbox"/> 붓고 빠는 것을 할 수 없어요.
	18-20개월	<input type="checkbox"/>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벗지 못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5개 이상의 볼록을 쌓지 못하거나 낙서하지 못해요.
	만2세 6개월	<input type="checkbox"/> 책장을 한 장 넘길 수 없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6개 볼록을 쌓지 못하거나 직선을 긋지 못해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10개 볼록을 쌓지 못하거나 동그라미를 보고 따라 그리지 못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볼록으로 계단을 쌓지 못하거나 대각선을 따라 그리지 못해요.	

14 고서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언어 발달	5-6개월	<input type="checkbox"/> 응답이 없어요.
	8-9개월	<input type="checkbox"/> '다', '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0-12개월	<input type="checkbox"/>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응답이 수준의 발달도 늦어요. <input type="checkbox"/> 단어, 비마호고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8개월	<input type="checkbox"/> 의미 있는 단어를 3개 미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간단한 두 단어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지 못해요.
	만2세 6개월	<input type="checkbox"/>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주어+목적어+서술어 등 3개의 구문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만3세 6개월	<input type="checkbox"/> 절반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짧은 문장 안에서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인지 발달	2-3개월	<input type="checkbox"/> 영아를 인식하지 못해요.
	6-7개월	<input type="checkbox"/> 젖어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8-9개월	<input type="checkbox"/> 개장놀이에 흥미가 없어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숨겨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15-16개월	<input type="checkbox"/> 인과관계 게임에 흥미가 없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비슷한 것끼리 모을 수 없어요(예, 동물, 과일 등).
	만3세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인물(성)을 포함을 몰라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두 개의 신웅에서 더 짧은 것과 더 긴 것을 고를 수 없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색깔을 모르거나 문자를 하나도 몰라요.
	만5세 6개월	<input type="checkbox"/> 자기 생일이나 주식을 몰라요.

15 OYONGGILL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15

- 나. 행동문제를 체크합니다.
- 발달지연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행동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 영유아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이 아니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어려운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유아가 하면 '문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문제 행동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유아에게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몰라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문제는 주변 환경(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장소,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환경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부적절한 행동이 모두 행동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동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별이 필요합니다. 행동의 빈도, 지속시간, 강도, 연령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 Tip 적음 <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양상>

- 자선이나 타인의 신체에 공격하거나 성해를 인하는 경우(예, 물기 때리기 등)
 - 일과생활, 사회적 상호작용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우에, 그를 활동 시 소리치르기, 주의산만 등)
 - 학업수행에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 같은 행동을 나타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이러한 행동문제가 정기(13~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사회적 정서 발달	3개월	<input type="checkbox"/>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아요.
	6~8개월	<input type="checkbox"/> 노는 상황에 웃지 않아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말라기가 어렵고 접근하면 긴장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화를 어유가 없는데도 아무 이유없이 지고, 울고, 소리를 질 걸어요.
		<input type="checkbox"/> 의미있는 눈맞춤이 안되거나 또래들이나 성인하고 눈치 안맞아요.
만3~5세	<input type="checkbox"/> 계속해서 움직여도 반응에 저항해요. 다른 어린이들과 놀지 않아요.	

출처 : 노진아, 김민하, 김경민, 권영미(2011), 영유아 특수교육, pp.144-146 / 부산시영리서, 우리아이발달지연선(2020), 영유아의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pp. 16-49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5),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영등매뉴얼, pp. 89에서 발췌 후 수정.

- **신생아~12개월**
 - 가장 눈에 띄는 발달영역은 운동발달영역에서의 지연이지만, 대근육 운동발달은 정상범위야 매우 넓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발달지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근육 운동발달지연이 함께 있거나 근긴장도의 이상, 원시반사가 늦게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발달지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몸이 뻣뻣하거나 관절을 굽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 몸이 너무 축 쳐져 있거나 움직임이 적다.
 - 몸을 움직일 때, 한 쪽을 더 많이 사용한다.
 -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신체접촉을 싫어한다.
 - 한 번 울면 말라기가 어렵다.
 - 소리를 내지 못한다.
 - 놀이할 때 즐거워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 **결혼마 시기-만2, 3세**
 - 말이 늦거나 발음이 나쁘다는 등 주로 언어발달의 문제가 주 증세로 나타나며 태인과 눈은 의미있게 맞추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성 문제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표현언어 뿐만 아니라 수용언어도 함께 지연되어 있으면 심각한 언어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편관찰의 여 평정척도 2>

수업참여 관찰 체크리스트

유아명:	관찰기간:	관찰교사:	교사		평가척도	
			관찰내용	점수		
참여번호			진행	조금	꽤	매우
	1. 교사가 말할 때 시선을 집중하여 듣는다.		0	1	2	3
	2. 책이나 질판, TV 등 보라고 한 곳을 본다.		0	1	2	3
	3. 개별과제 수행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0	1	2	3
	4. 발표기회, 대표시간 기회 등이 주어지면 참여하지 못해도 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0	1	2	3
	5. 발표나 질문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한다.		0	1	2	3
	6. 학습준비태도를 칭겨 주고, 그것을 알아서 관리한다.		0	1	2	3
	7. 친구의 것을 보고 쓰거나 만질 및 빌릴 수준에서 보인된 형태로 수업에 참여한다.		0	1	2	3
평가						
	8.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닌다. (몸간은 자주 떨어뜨리거나, 깨눴다. 잠이났었다 하는 행동 등)		0	1	2	3
	9.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고, 관심 없고 지루해 한다. (하품이나 탄 고개를 보거나, 졸거나 옆으로 있는 행동 등)		0	1	2	3
	10.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시간을 끈다. (교사가 독촉하면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음)		0	1	2	3
	11. 말이나 행동을 하기 위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끼어든다.		0	1	2	3
	12. 주어진 과제를 빨리 대응 끝내고 자꾸 다했다고 하거나, 다음에 뭐할 건지 등의 질문으로 교사를 재촉한다.		0	1	2	3
	13. 말은 말을 반복하거나 입을 해주었는데도 자꾸 확인하는 등 지나치게 말이 많다. (주제와 상관없는 말 등)		0	1	2	3
	14. 자기 것보다는 친구가 하는 일이나, 다른 외부 자극에 더 관심이 많고 몰입한다.		0	1	2	3
평가						

20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유형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참여번호	관찰내용	평가척도			
		진행	조금	꽤	매우
	15. 자리에서 이탈하여 돌아다닌다.	0	1	2	3
	16. 이상한 소리나 소음을 내어 수업 분위기를 심안하게 만든다. (괴성, 구함, 강성조절이 어려운 반복된 행동 등)	0	1	2	3
	17.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쏟거나 엎뜨르거나 하는 실수로 수업 전체의 동의를 차단시킨다.	0	1	2	3
	18. 인번차리(음반, 책 등 집중) 문제로 수업의 흐름이 중단될 때가 있다.	0	1	2	3
	19.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안절이나 성충도 남을 특히 간섭, 물건을 마음대로 만짐)	0	1	2	3
	20.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행동, 말 또는 고서나 친구에게 지대는 식의 반복을 하려고 한다.	0	1	2	3
	21. 날이 먼저 자기를 괴롭히고 공평하지 않다는 식의 불만으로 자주 시비가 붙는다.	0	1	2	3
	평가)				
기타유권					

출처: 경기도교육청(2013), 영유아특수교육 지침서, p. 98

③ 부모면담

가. 부모면담 과정에서 관찰내용(관찰일지 등)을 공유합니다.

- 신발과장에 필요한 지도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담당교사는 해당 영유아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영유아 발달상태 기록을 공유합니다.

나. 신발 또는 신중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인지 관찰하고 부모면담을 진행합니다.

-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발달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신발검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④ 또래와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 영유아의 신발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부모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 교사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발견하면 바로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문가들도 발달에 의심이 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개입이나 관련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기 초 면담에 그동안 관찰하거나 촬영한 영유아의 문제들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이후 부모는 부정과 분노, 거부감 등을 표현하면서 교사에게 미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한 번의 면담으로 아이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신발과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조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의 발달에 대해 간헐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당황할 뿐입니다. 이 때 교사는 또래는 이렇게 하는데, OO이는 ...을 못한다. 라는 접근보다는 "OO이는 교실에서 이런 점을 어려워해요"라고 말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둠이 된다면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함께 방법을 찾는 과정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부모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교사는 부모에게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교육진흥원 (2019), 장애아 통합교육 관실팀 매뉴얼, p. 237

22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①... Tip 적음 <부모면담 이렇게 해주세요>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어머니 시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편고 더우셨지요? • 부모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OO이는 이번 주에 잘 지냈어요. 특히 **에 관심을 새롭게 보였어요. 집에서 OO이와 어떻게 지냈어요? •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오늘 면담을 요청드린 이유는 OO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데 ** 부분이 있어요. 제가 관찰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봐주시겠어요? <p>①... Tip 적음 ① 관찰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읽어보면서 질문하면,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몰라요." 혹은 "저도 이런 행동 때문에 사실 걱정했어요." 등 교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답합니다. <p>①... Tip 적음 <부모면담에 따른 상담 사례>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집에서는 재가 관찰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았나요? 보셨다면 어떻게 나타났나요? • 부모의 이야기(가정에서의 생활)를 경청합니다. <p>①... Tip 적음 <부모면담에 따른 상담 사례>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재색간에는 전문가에게 가서 한 배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요. •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상담 가능한 전문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찰 자료를 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등의 양육자와 의논 후 다시 면담 날짜를 정합니다. — 어머니와 면담이 어려운 경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면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OO이가 자녀의 문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영유아를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시도하고자 노력해 합니다.</p>

출처: 조윤정, 강지현 (2019), 장애영유아 교사를 위한 특수아진단 및 평가, p. 58

- * 교사는 어린 부모를 만나느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장애위험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Tip .. Tip 적음 <부모 유형에 따른 상담 사례>

- 자기 자녀에게만 신경 써주길 요구하는 부모
 - 개별상담이라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수용한 후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소송하여 골고루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 교육적/비교육적 소문에 민감한 부모
 - 교육목표와 내용, 근거 등은 가능한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신뢰감을 형성하세요.
 - 소문(SMS, 인터넷 등)이 사실인 경우에는 부모의 이야기를 검증하지만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해 주세요.
-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
 - 갑작스럽게 또는 한 번에 아이의 문제점을 전달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우선 형성한 후 하루 일과를 편이하게 이야기하듯 아이의 상황을 인식시켜 주세요.
 - 아이의 문제점이나 지도가 필요한 점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강점도 함께 전달해 주세요.
 - 교사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기 보다는 심리감사나 전문가의 평가라며 아이의 문제를 부모에게 알려주세요.
-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
 -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 각자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와 부모의 협조가 아이의 행동을 변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부모
 - 교사는 부모의 조급함에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의 성급함 속에 깔려있는 기대와 소망을 수용하면서 변화의 때와 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 자녀의 변화는 어린이집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의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부모의 조급함은 오히려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 비협조적인 부모
 - 어린이집 행사와 자녀교육에 비협조적인 부모의 경우,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상담을 요청하고 어린이집의 교육방침, 교육내용과 목표, 근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비협조적이러 거리를 둔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무관심한 부모
 - 무관심한 것 같은 부모가 나중에 한꺼번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뎠둑하다 고 교사가 무심해서는 안됩니다.
 - 자녀를 매개로 자주 대화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부모의 의사를 때때로 살펴야 합니다.

출처: 유성희, 김현희 (2011). 단행본서비스 영아반 전문과정, pp. 10-13 부록후 수정

03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선별이란?

- 선별은 발달적 위험이 높은 영유아를 찾아내는 것으로 추가적 교육,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평가과정입니다.
-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은 왜 중요할까요?
 - 발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의뢰를 통한 선별검사와 심층검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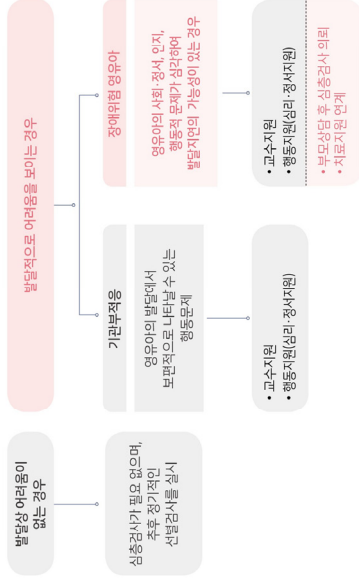
Tip 적용

- 어린이집 교사도 선별검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 발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과정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과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담지원 인력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6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1) 선별검사 실시와 부모상담 과정

- **영유아 특성파악**
 - 관찰 및 부모상담을 토대로 인지, 언어, 대 · 소근육운동, 사회 · 정서, 자조기술 등 영유아의 발달 정도를 파악합니다.
 - 영유아의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합니다.
- **선별검사 도구 준비**
 - 발달특성에 적합한 선별도구를 선택합니다.
 - 교사(반부, 교사상, 유의(장애, 부모동의(여부)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 **선별검사 실시**
 - 준비한 검사로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찰 · 체크리스트 등 보완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에 대한 부모 상담**
 - 선별검사와 보완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 영유아를 영장붙임하거나 전향적인 영유아의 행동을 과도하게 병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합니다.
 - 추가적 교육, 치료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 부모에게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해 주세요.






01YONGGILL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27





Tip

Tip 안내 <영유아를 위한 발달심발달사>

- 영유아기 발달영역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달영역들 간 상호의존적 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간헐적인 발달영역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강아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 보다 심층적인 검사에 의뢰되기 전 체계적인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필요할 영유아들이 선별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불필요한 특수교육관련 검사에 의뢰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발달영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해당 영역을 좀 더 깊이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번의 평가로 발달선 상에 있는 영유아를 평가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심사 형태	문항구성	검사도구
한국영유아 발달검사 개정판 (K-DS1)	만 4개월 ~ 71개월	5~10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항(117개월 미만) • 46항(18~71개월) • 각 영역의 선별영항 • 6~7개월 발달평가부터 추가모양 • 18~19개월부터 사조기출 추가 • 장수행동문제 검사 점포추가 •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 	 출처: https://h.nis.or.kr/
영유아발달 체크리스트	0세~5세	20분	부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저 자권 행위를 통해 우리문화에 맞게 발간 • 생활양식에 맞는 체크리스트 찾기 • 유아가 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지원 	 출처: http://wcor11k.com/
영아 발달 교육진단검사 (DEP)	출생~ 36개월	20분	부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연구자에 의해 우리나라 유아 들 대상으로 표준화작업 가진 도구 • 344항(0~36개월 만에서 8개의 월령 단계마다 문항수가 다름) •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 의사소통/사회성(기분생활) 	 출처: http://isornell.com/

28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유형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심사 형태	문항구성	검사도구
한국모영유아 발달검사 (K-DEI)	6개월~ 30개월 미만	20분	부모, 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언어, 사회성, 신체발달,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등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 아별 문항은 각각 35문항씩 총 210문항임 	 출처: http://www.espakr/mail
한국모영유아 발달검사 (KODR)	0세~ 72개월	10~15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발달, 건강,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발달가능성 수준 에 대해 평가하는 1차적 발달 선별 검사 • 부모질문지에는 6개의 사용형 질문, 2.5개의 문제행동이 포함 • 사회성/사회행동/소근육운동/ 소근육운동/언어영역 	 출처: http://isornell.com/
한국유아발달 검사 (K-CIP)	6개월~ 29개월 / 30개월~ 72개월	20분	부모, 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발달문항은 각각 40문항씩 총 240문항 • 인지언어/사회성(기분생활)/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 • 기능한 부분외 교사가 상호 의사 소통하면서 체크하되, 평가에 관찰 한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 	 출처: http://isornell.com/
한국판 아동발달검사 (K-CDI)	15개월~ 72개월	30~40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관찰을 통하여 영유아의 심도 있는 발달적 정보를 얻는 체계적인 발달검사 • 사회성/사회행동/소근육운동/ 소근육운동/표준언어(언어이해)/ 글자소통(언어발달 등 9개 발달 영역 총 300문항) • 왕기능력, 건강, 성장, 그리고 행동 상의 문제 등과 같은 잠재 아동의 발달에 대해 의심되는 증상과 문제를 체크 	 출처: http://isornell.com/

29 OYONGGIL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29

→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의 학습, 언어, 인지행동, 놀이, 사회성, 집중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진단(diagnosis)을 실시하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치료지원을 접근하기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정신 건강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평가 및 진단하여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및 언어재활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사가 팀을 이룬 다각적 치료적 접근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심층검사(발달평가) 및 치료지원 연계

- 발달평가 결과·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으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이 느리진 것 같아 검사를 받아보고 싶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상담이나 검사를 받으려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 ❶ •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으며(기밀기록으로 되어 있음), 국가 사무에 필수적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원에 진료 기록은 남지만, 의료보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병원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출처: <http://www.najumh.go.kr/>

❓ 나중에 보충을 가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 ❶ • 치료 전기입원 보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하며, 보충사마 다기준이 조금씩 다름).
- ❶ • 사보침의 경우 2018년 보충상품 관련 제도개선(장애아부 사전고지 폐지 및 보침로 차별 금지)으로 계약 전 우렐의무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등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긴밀하게 의사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산 상담은 상관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출처: <http://www.najumh.go.kr/>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❶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등록기준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나 「사용서비스 전자비우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0

맞춤형 발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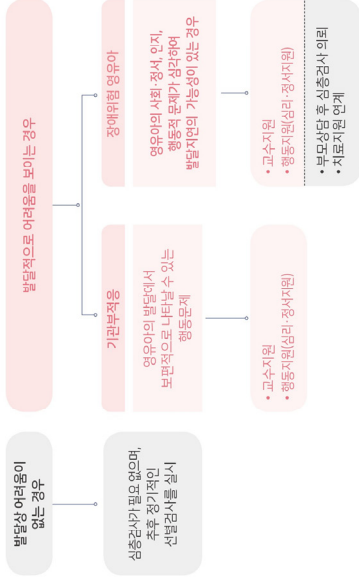
1 아동상담센터에서 받았던 발달검사나 영유아발달진단서에서 판정받은 '진화평가'·'과' 등으로 인해 아이의 결혼 및 취업, 군대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나요?

- 아이의 결혼 및 취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진로 기록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고, 있다고 해도 누가 볼 수 없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할 수도 있겠지만 취업 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병사용진단서를 받아 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중증정신질환(중증의 조현병, 조울증, 중등도 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증)이나 심한 운동성 질환의 경우, 군의원이 판단해서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로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군 면제를 원하거나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출처: <http://www.najumi.go.kr/>

- 이밖에도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로 인해 영유아가 발달의 어려움을 보인다면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으로 인해 영유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디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수집 및 신별, 발달지원 관련 상담에 따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Tip 안내

OECD(2008)에서는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 아닌 특수 요구 교육(special needs education)으로 지칭하며, 특수한 교육적 요구라는 것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 교수자와 교수자료와 같은 인지 및 물적 자원과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는 ①생활환경 원인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 ②장서 및 행동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③사회적경제적 혹은 문화적 결손으로 인한 영유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판별되지 않은 위험고 영유아들도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동원, 이다석, 손승찬, 고재정, 2015).



교수지원

-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영유아의 활동 참여와 반응 정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혹은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에 따라 영유아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는 교수자료,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수지원 등을 유연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교사는 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지원할 때 영유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영유아의 다양성과 개별성, 자질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가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교수지원>

교수지원 전략	전략의 예
유아주도 따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흥미 있어 하거나, 선택한 활동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활동을 반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에게 필요한 목표를 파란 후, 유아기 원하는 행동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거나 그 행동을 수행하는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기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만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적 촉진: 유아기 행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말을 함 • 몸짓 촉진: 유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손, 팔의 움직임과 이외 다른 움직임을 의미함 • 모델 보여주기: 요구되는 행동을 보여줌 • 부분적 신체도움: 부분적으로 신체적 도움을 제공하여 유아의 움직임을 안내 • 완전한 신체도움: 신체적으로 유아의 움직임을 안내
진단을 다양하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발달적 수준의 유아를 집단으로 함께 구성
유아들이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가능한 한 적은 도움으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필의 난이도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의 상호작용할 때, 교사가 사용하는 말의 난이도를 유아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조절 단, 유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림 • 발달 수준에 맞게 사물이나 사건의 특징 묘사하기

36 교수지원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교수지원 전략

전략의 예

- ① **어휘와 개념 발달시키기**
- 호칭명하기: 자신에게 소리를 내어 명하기: 무엇을 보고, 듣고, 하고, 느끼는지 이야기하기, 유아의 후로 생활 언어 활동, 물체, 사건을 묘사하기(예, 저녁을 먹기 위해 옷을 꺼내겠다)
 - 평행화: 유아기 보고, 듣고, 수행하고,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기(예,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네)
 - 반복과 중복 사용하기: 다섯 개의 블록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블록을 세어볼래?
 - 인과관계를 이해하도록 격려하기: 노란색에 빨간색을 넣으니까 물감이 주황색으로 변했네.
- ② **문장구조 발달시키기**
- 확장: 유아기 말하는 것을 확장하여 말하기, 예를 들어 유아 자신이 자신의 결정을 담은 후 '바깥에라고 말하면 교사는 '바깥에 나가고 싶니?'라고 확장하기
 - 유아기 말하는 것보다 약간 길고 조금 더 복잡한 문장 만들기: '유아가 '레미 공?' 이라고 하면 '그래, 그레, 레미 공이냐?'라고 대답하기
 - 복잡한 문장구조 시범 보이기: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는 밖에 나갈거야.

다양한 종류의 말을 사용

선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로부터 언어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음 • 제한적인 선택 제공: 유아의 자물쇠를 존중하면서도 지나치게 무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때, 영유아가 신발을 신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란 운동화를 신을까? 아니면 검정 운동화를 신을까? 하고 2-3개의 선택을 하도록 함. 신발을 신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다만 어떤 신발을 신을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요구/모uel 과정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응하면, 교사는 목표를 '한 단어나 구를 강조하면서 언어로 제공하는 모델'을 제공
'말' 전략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대상 활동의 구성으로 가운데 하나를 식별하거나 필요한 정보나 재료를 알려 제공하지 않음 •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나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예, '유아가 어디 있지?', 찾아보는 것) 과정을 통해 다른 문제 해결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눈에 보이지 않던 말지 않는" 전략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은 말상하기가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물건을 유아의 시야에는 있지만 말지 않도록 말자들이 눈에 눈에 밝기 위해서 언어와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게 됨

출처: 하계원, 장란소, 이영철, 문현미 (2008), 영유아를 위한 사전, 말기 및 프로그램 체계 4권, p. 49-55 발췌 후 수정.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

- 영유아에게 상용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영유아가 기대행동(어린아이집에 서 보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약속이나 규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영유아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한 말은 일관성 있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지원(심리·정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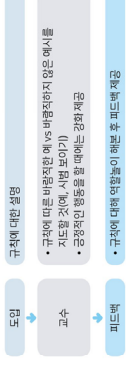
지원 전략	전반의 예												
지향적인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으로 정돈된 공간 • 잘 계획되고 예측이 가능한 고정로 구성 												
공정적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영유아 간 의미있는 자주 대화하기 •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기 • 원은 목소리로 영유아들과 눈맞춤을 하기 • 영유아가 의사를 통하려고 할 때 경청하기 • 민사회의 정황을 자주 칭찬해주기 • 유아의 상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5:1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적 상호작용 빈도와 부정적 상호작용 빈도에 대한 매치 비율 - 한 번 훈육할 때마다 다섯 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져야 함 -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1이 되게 함 												
비밀지하게 행동할 때를 포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훈육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만 제공 • 적절한 행동에 대해 언어적 칭찬이나 관심을 주어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어 함 • 영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할 때 즉각적으로 칭찬하기 • 바람직한 것을 특유하여 말하기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체적 표현</th> <th>언어적 표현</th> </tr> </thead> <tbody> <tr> <td>안기</td> <td>"내가 _____ 하니까 좋다."</td> </tr> <tr> <td>머리 어깨 토닥이기</td> <td>"고마워! 내가 _____ 할 때 멋있어."</td> </tr> <tr> <td>미스, 링크</td> <td>"대단해! 멋져, 잘했어!"</td> </tr> <tr> <td>하이파이브</td> <td>"잘하면 우리함께 _____ 했거야."</td> </tr> <tr> <td>양지 척</td> <td>"내가 _____ 하니 잘 자랑스럽다."</td> </tr> </tbody> </table> <p>※ 단,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을 떠올리게 하면서 칭찬하지 말 것.</p>	신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안기	"내가 _____ 하니까 좋다."	머리 어깨 토닥이기	"고마워! 내가 _____ 할 때 멋있어."	미스, 링크	"대단해! 멋져,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하면 우리함께 _____ 했거야."	양지 척	"내가 _____ 하니 잘 자랑스럽다."
신체적 표현	언어적 표현												
안기	"내가 _____ 하니까 좋다."												
머리 어깨 토닥이기	"고마워! 내가 _____ 할 때 멋있어."												
미스, 링크	"대단해! 멋져,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하면 우리함께 _____ 했거야."												
양지 척	"내가 _____ 하니 잘 자랑스럽다."												

38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유형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지원 전략

전반의 예

-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칭찬하고 본딴 후 규칙과 절차를 일관성 있게 시행
- 영유아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긍정적이 언어로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 "안 돼" 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것.
- 최소한의 규칙(단계)이 수를 유지하기
-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적인 규칙 설정
- 단정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규칙 만들기



규칙 적용

※ 행동 지도를 위한 모든 전략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고 타당한 전략을 사용해야 함.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 것.

- 다양한 감정과 정서에 대안하도록 도와주기
-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 친구와 나누어 사용하기
- 차례 지키기
- 도우주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지도
-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돕기
-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름을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미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 다양한 감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또래들과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죄나 갈등을 책임질 방법을 가르쳐주기

사회·장서적 지원

충돌제

- 수기를 사용해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여 자신의 신체적 행동적 분노 신호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교사와 함께 작성해보고 화난 상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http://cseleivanderbilt.edu/resources/strategies.html>

지원 전략

전략의 예

문제해결전략 가르치기

- 화와 속상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표현방법은 인정할 수 없음을 일러준 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제시

출처: The National Center for Pyramid Model Innovations <http://worldcreativeteachers.com/>

사회 정서적 지원

출처: 권현주, 배성현, 한남주, 김옥희 (2019), 영유아교사를 위한 특수아동의 이해, pp. 224-227 / 박혜진 (2015),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PPSO 중재: The Pyramid Model, pp. 35-38 / 이포산, 방영애 공역 (2019), 유아기 정서행동장애, p. 107 불행히 후 수정.

[Tip] Tip 전략 <행동유형별 구체적인 지도전략>

행동유형	교사의 지도방안
지러이탈 및 사정어미 몰아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투를 보이기 등으로 유사의 2차를 준다. • 사정어미는 움직임을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활동을 계획한다. • 조용한 곳에 유아를 앉힌다.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활동을 방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을 하듯 무시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게 한다(예, 대담단 활동 시 눈물 등기). • 대담단 활동 시 말을 하기 위해 손을 들면 칭찬해준다. • 유아에게 자기감동 기술을 가르친다(예, 타이머가 돌아오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교사의 지도방안

행동유형	교사의 지도방안
교사의 말을 분명하게 듣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기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말로 반복하게 한다. • 유아의 짧은 주의집중 시간에 맞추어 과제를 짧게 나누는다. • 한 부분이 한 과제씩 제시한다.
일정 시간 동안 과제에 머물거나 인상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준다(예, 책상을 똑똑 두드리거나 어깨 톡대기) • 과제를 명심해 두는 도려 붙여준다. • 과제에 집중하거나 인상하면 즉시 강화를 제공한다. • 과제를 짧게 나누어서 하게 한다.
과제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스스로 자기정권을 하도록 순서도나 행동목록을 제시한다. • 과제하는 시간을 인정해 준다. • 충분한 도려를 정하여 옆에서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도록 한다.
교사의 도움을 없이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방법을 지도한다(예, 손들기, 도움 요청카드 등) •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 청각적 보조자료를 제공한다(예, 순서도, 사진자료, 영상 자료 등) • 교사의 도움 빈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 과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눈다. • 과제시도 횟수를 강화한다.
시청각 자극에 쉽게 산만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활동 시 유아를 앉혀 앉힌다. • 산만하지 않은 장소에 앉히고 불필요한 시청각 자극을 수정한다(예, 교구장 위 정리하기, 꾸민 테이블) • 중요한 자극에 집중하도록 개인 신호를 준다. • 중요한 장소에 따라 자료를 저우 표시한다(예, 중요한 자료-노란색)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유지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및 과제 시간을 줄인다. • 쉬는 시간을 자주 제공한다. •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한다. • 유아의 행동을 보화한 동영상을 교사와 함께 보면서 생각해보게 한다.
감각 회를 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문제해결전략을 가르친다. • 대화를 위한 노력에 보상을 제공한다.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를 일관성 있는 스케줄로 운영한다. • 하루의 일과를 시각적 자료로 제시한다. • 불확실하게 장의 일과를 제공한다. • 유아에게 말과나 구수용의 변화를 미리 설명하여 익숙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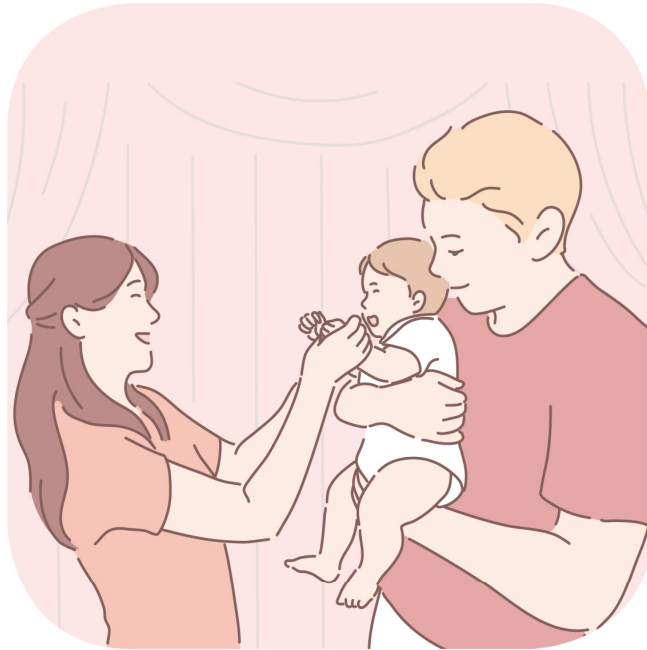
출처: 강옥희 (2004), 유아의 결단 과정 행동장애(교사를 위한 지침서)

정리해볼까요?

단계		내용	역할	활용서식
I	영유아 발달의 이해	Q. 발달에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이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유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발달의 특성과 원리, 기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교사	
II	기관 부적응/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과 선별	Q. 교사 스스로 영유아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영유아 및 양육환경 요인, 교사 요인, 물리적 환경적 요인을 체크합니다. 물리적 환경요인은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사	•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구성 점검 체크리스트
		Q. 학급 내에 있는 영유아 중 또래에 비하여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발달지원이 필요한 영유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입소할 때 제출한 영유아건강검진 서류에서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교사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A3.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와 행동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관찰을 통해 체크합니다.	교사	•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 • 행동문제 체크리스트 • 직접관찰과 간접관찰	
	A4. 부모면담을 통해 영유아 관찰내용을 공유합니다.	교사		
III	선별과 심층검사 관련 상담	Q. 영유아의 사회·정서, 인지, 행동적 문제가 심각하여 발달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어린이집 교사도 선별검사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받은 후 발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부모상담 후 상담지원 인력에게 선별검사와 심층검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A2. 상담을 통해 상담지원 인력은 심층검사 의뢰와 치료지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사, 상담지원 인력	• 영유아를 위한 발달선별검사
		Q. 영유아의 발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A1. 교수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활동 참여와 반응 정도를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A2. 영유아에게 필요한 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을 적용합니다.	교사	• 교수지원 • 행동지원 (심리·정서 지원) • 행동유형별 구체적인 지도전략

44 교사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협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CONTENTS

01 장애위협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04
02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10
0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6
0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5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32

01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궁금해요

- 우리 밖에 쉽게 화를 내고 활동시간에 집중을 못해서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는, 좀 '이쁜'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 아이는 4살인데 짧은 단어 외에는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지도 어릴 적에 말을 늦게 시작했다고 들긴 했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요?
- 집에서는 괜찮은데, 어린이집이나 밖에만 나가면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 걸까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시작하는 것이 늦어서, 혹은 같은 반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여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장애위험 영유아란 특정한 선별검사로 선정된 영유아들로,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달지연이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영유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집단보육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강제선상 영유아'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편의상 '아픈 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모를 위한 <한 톨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최근 연령에 맞는 진행적 발달수준에서 벗어난 영유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¹⁾ 진행적 발달을 보이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경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을 미루거나, 다른 친구들과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하루반에 편성되곤 합니다 (2019년 현재, 경기도 내 2,274개소 3,358명). 그러나 단순히 어린 동생들과 있는 것으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1) 영유아건강검진지의 한 종류로 시행되는 발달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이 2012년 80.5%에서 2018년 74.8%로 줄어든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직검사' 요양,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 등 발달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유아 수는 2012년 2.5%에서 2018년 12%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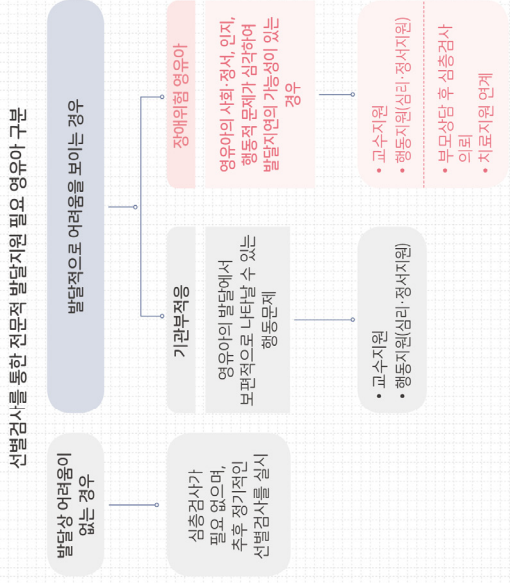
11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궁금해요

- 집에서 안 그러는데, 어린이집만 가면 아이가 배변실수를 해요. 이제 유아반인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 발음도 부정확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너무 적은 것 같다고 하세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심하신 건 아닐까요?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어린이집에 가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 다른 어린이집에선 그런 적이 없는데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의 경우,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적응행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상범주에서 발달이 느린 아이, 새로운 기관에 부적응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장애위험을 가진 아이와는 다르게 부모와 교사의 행동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위험 영유아의 경우, 일찍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진행적인 발달수준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적절한 중재와 교육이 제공될 경우, 아이가 겪게 될 발달지연 수준을 줄이고 2차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아이의 발달상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조기선별검사가 중요합니다.



6 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01 장애위험 영유아는 어떤 아이일까요?

궁금해요

- 조금 이상하다고 괜히 진단 받았다가 장애판정이라도 나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나중에 결혼하거나 취업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냥 놔두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 교육을 받는다고 딱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아이에게 어떤 애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신경이 쓰여요.

영유아기는 발달의 시작점으로 이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쉽게 상처 받고, 동시에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발달지연을 줄이고 전형적 발달에 보다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상 범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던 아이가 심각한 발달지연을 겪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조기선별을 통한 지원적 증대는 필수적입니다.

발달의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로 교육의 가능성과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당합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이후 성장과정에서 행동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단계의 발달상의 결손은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는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 발달과 성장에도 다양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관 적응의 어려움이나 발달의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여러 이유로 적절한 증례를 빨리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2차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서는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어린이집과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는 지원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영유아의 어려움을 발견, 선별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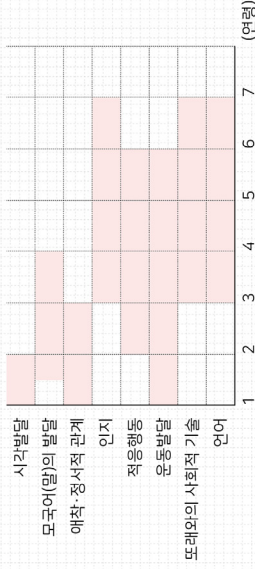
궁금해요

- 더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낮을 가리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 기저귀 뗄 지도 한창 됐는데, 동생 생긴 후로는 다시 실수가 늘어서 밤에 기저귀를 채워야 해요.

영유아가의 발달은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시기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역이 다릅니다. 아이가 경험하는 발달수준에 따라 아이는 무언가를 만지거나 입에 넣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언어에 민감해지거나, 애정을 가진 상대에 대해 심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달이 늦어지거나, 기존에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 시적 변화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적 민감기



출처: 국민특수교육원 (2016), 장애영유아 양육 관리집이 제1권 발달장애 영유아시 및 정보, p.43 발행 후 수정

Tip

한국 영유아발달진보검사도구(월령별)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dp.go.kr/health/contents.do?key=35308>

02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궁금해요

- 누나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말이 너무 느려요.
- 쌍둥이인데도 한 명이 너무 예민하게 울어서, 다른 아이가 매일 치이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영유아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아이의 성별, 형제 순위, 가족구성, 또래관계 등은 아이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기질이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서의 개인차를 말합니다. 타고난 기질의 차이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도 서로 다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① 순환기질

- 대부분 자반하고, 대부분 긍정적 기분을 가지고 있다.
- 잠 자는 시간이나 음식 섭취와 배설 및 행동 등의 일과가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 새로운 경험에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온화한 감정을 나타낸다.

② 까다로운 기질

- 생리적 기능에 있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이 느리다.
- 수면과 식사와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다.
-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와 의심을 보이며 음식습관도 까다롭다.

③ 느린(더딘) 기질

- 활동이 많이 없고,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 수면과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규칙성은 순한 영아와 까다로운 영아의 중간 정도이다.
-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지만 친한 사람과 친한 모습을 보인다.

0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약속을 잘 안 지킨대요. 근데 일부러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세요. 집에서도 가끔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이의 장애위험 여부를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공식적 검사 이전에 다양한 정보 수집으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확인합니다(어린이집에서는 앞서 말한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부모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발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지속관리 필요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체크리스트와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연령에 맞는 전형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나치게 심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는지, 양은지 체크하고,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실시합니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교사와 부모가 편담을 가지고 아이의 알아낸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의 발달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조그스런게 번별해야 합니다.



10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산별검사 실시 및 부모상담 지원 과정
→ 추가적 교육,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진단과정

< 산별검사 실시 및 부모상담 지원 >

영유아 특성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및 부모면담을 토대로 적응행동, 대소근육운동 인지, 사회성 등 영유아의 발달정도를 파악 • 영유아의 의사소통 방법 조사
산별검사 도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특성에 적합한 산별도구 선택 • 검사방법, 검사상 유의점(예, 부모등의 여부) 등을 숙지
산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검사로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찰·체크리스트 등 보완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기
결과에 대한 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검사와 보완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 • 추가적 교육, 치료에 대한 상담 - 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 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계 필요성 당부

18 부록을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유형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 우리 아이는 그냥 느린 걸까?

< 부모와 교사를 위한 발달의 적신호 테스트 >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대근육 운동 발달	100일	<input type="checkbox"/> 목을 가누지 못해요.
	4개월	<input type="checkbox"/> 엎을 수 없어요.
	5개월	<input type="checkbox"/> 뒤집기를 못하거나 몸을 굴리지 못해요.
	7-8개월	<input type="checkbox"/> 혼자 스스로 앉지 못해요.
	9-10개월	<input type="checkbox"/> 붙잡고 서지를 못하거나 잡아줘도 설 수 없어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걷기가 뻘뻘하고 불안정하며 자주 넘어져요.
	15개월	<input type="checkbox"/> 걸을 수 없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계단을 기어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해요.
	만2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두 발로 점프를 못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한 발로 장난 사인을 수 없어요.
소근육 운동 발달	만4세	<input type="checkbox"/> 한 발로 볼짝 뛰기를 하지 못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직선을 따라, 뒤로 앞으로 걸을 수 없거나 5~10초 동안 한 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요.
	3-4개월	<input type="checkbox"/> 주먹을 꼭 잡고 난 뒤 떼지 못해요.
	4-5개월	<input type="checkbox"/> 땅이나 장난감을 움켜쥐지 못해요.
	7개월	<input type="checkbox"/> 물건들을 각 손에 쥐지 못해요.
	10-11개월	<input type="checkbox"/>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작은 물건을 잡지 못해요.
	15개월	<input type="checkbox"/> 넣고 빼는 것을 할 수 없어요.
	18-20개월	<input type="checkbox"/> 양말이나 장갑을 혼자 벗지 못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5개 이상의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누르하지 못해요.
	만2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책장을 한 장 넘길 수 없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8개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직선을 긋지 못해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10개 블록을 쌓지 못하거나 동그라미를 보고 따라 그리지 못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블록으로 계단을 쌓지 못하거나 대각선을 따라 그리지 못해요.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19

1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언어 발달	5-6개월	<input type="checkbox"/> 웅얼거림이 없어요.
	8-9개월	<input type="checkbox"/> '다', '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10-12개월	<input type="checkbox"/>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웅얼거림이 수준의 발달도 낮아요.
	18개월	<input type="checkbox"/> '다다', '바바'하고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의미 있는 단어를 3개미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만2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간단한 두 단어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구절을 반복해서 말하지 못해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3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주어-목적어-서술어 등 3개의 구문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질문, 정답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짧은 문장 안에서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참고 · Tip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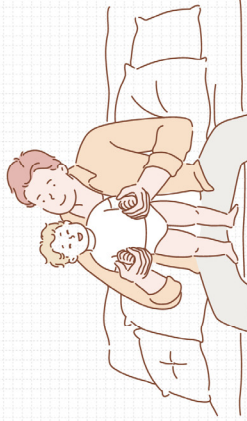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개월이 되어도 말보다는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어 문장을 만들지 못하거나 만 3세가 되어도 의사 표시를 위한 문장을 못할 때에는 언어발달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인지 발달	2-3개월	<input type="checkbox"/> 영모를 인식하지 못해요.
	6-7개월	<input type="checkbox"/> 떨어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8-9개월	<input type="checkbox"/> 까꿍 놀이에 흥미가 없어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숨겨진 물체를 찾지 않아요.
	15-16개월	<input type="checkbox"/> 인과관계 게임에 흥미가 없어요.
	만2세	<input type="checkbox"/> 비슷한 것끼리 모을 수 없어요(예, 동물 탈것 등)
	만3세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이름(성)을 포함을 몰라요.
	만4세	<input type="checkbox"/> 두 개의 선 중에서 더 짧은 것과 더 긴 것을 고를 수 없어요.
	만5세	<input type="checkbox"/> 색깔을 모르거나 문자를 하나도 몰라요.
	만5세6개월	<input type="checkbox"/> 자기 생일이나 주스를 몰라요.

20 부속을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구분	발달연령	발달의 적신호
사회 정서 발달	3개월	<input type="checkbox"/>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지 않아요.
	6-8개월	<input type="checkbox"/> 노는 상황에 웃지 않아요.
	12개월	<input type="checkbox"/> 달래기가 어렵고 접근하던 간장해요.
인지 발달	만2세	<input type="checkbox"/> 화살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 이유없이 차고, 물고, 소리를 잘 질러요.
	만3세	<input type="checkbox"/> 의미 있는 눈맞춤이 안되거나 또래들이나 성인하고 놀지 않아요.
	만3-5세	<input type="checkbox"/> 계속해서 움직여요. 혼욕에 저항해요.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아요.

출처 : 노진아, 김연하, 김경민 공역 (2011). 영유아 특수교육, pp.144-446 / 부산시광역시, 우리아이발달지표다 (2020).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pp. 16-49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5).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 매뉴얼, pp. 8-9에서 발췌 후 수정.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21

0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우리 아이가 뭔가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어딜 가야하는지 헷갈리고, 아이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어디에 딱히 물어보기도 힘들네요.
- 주변에서 소개하는 기관에서 발달검사를 받으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건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괜히 손님 모으려고 괜찮은 아이도 이상하게 물어갈 것 같고...

선별은 발달적 위험이 높은 영유아를 찾아내는 것으로 추가적 교육,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평가과정입니다.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표준화된 검사문항을 이용하여 아이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병원에서 하는 정밀한 발달진단에 비해 훨씬 쉽게 아이의 발달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애유형 영유아 조기선별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상담지원 인력은 어린이집 교사 등에 의해 1차 조사된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영유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수집된 관찰자료를 평가하거나, 교직원에 의한 직접 검사나 어려운 어린이집을 방문해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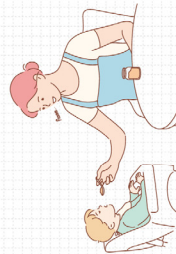
< 영유아를 위한 발달선별검사 >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기 전, 부모님과 선생님이 직접 선별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가 발달은 영역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달영역 간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영역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검사도구
한국 영유아발달검사 개정판 (K-DST)	만 4개월 ~ 72개월	5~10분	 출처 : https://hnhhs.or.kr/
영유아발달 체크리스트	0세~5세	20분	 출처 : http://woorif14.org/

03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도구명	대상 연령	소요 시간	검사도구
한국판영유아 발달 실태조사 (KCDF-R)	0세~ 72개월	10~15분	 출처: http://isorimall.com/
한국판 아동발달검사 (K-CDI)	15개월 ~ 72개월	30~40분	 출처: http://isorimall.com/



24 부모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0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산발감사는 받았는데, 아이가 정말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느린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달장애나 지원서비스처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동발달센터는 영유아 및 청소년의 발달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영유아에 대한 상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소견이 필수적인 장애 진단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때문에 장애 진단보다는 영유아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상담하고 치료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는 소아청소년의 학습, 언어, 인지행동, 놀이, 사회성, 집중력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진단을 실시하며, 이와 연계된 다양한 치료지원을 접근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정신 건강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평가 및 진단하여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및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학자, 임상병리사가 팀을 이룬 다각적 치료적 접근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0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있으면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등록기준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지원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유패이저를 참고하세요!

▶ **발달이 느린 것 같아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상담이나 검사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으며(기밀기록)로 되어 있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영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병원의 기록보관 의무 기간은 10년입니다.

▶ **나중에 보증을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 치료 전 가입한 보증을 상관이 없습니다.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하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 사보험의 경우 2018년 보험상품 관련 제도개선(장애아부 시진고지 폐지 및 보험료 차별금지)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제로이력(3개월~5년)등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장과 긴밀하게 의논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순 상담은 상관 없습니다.

• 설계사들은 미고지시 알아낼 수 있으니 미리 말하라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출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아동상담센터에서 받았던 발달검사나 영유아발달선별 상에서 판정받았던 '심화평가 권고' 등으로 인해 아이의 결혼 및 취업, 군대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나요?**

• 아이의 결혼 및 취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선 진로 기록이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 때문이고, 있다고 해도 누가 볼 수 없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할 수도 있지만, 취업 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아서 영사용진단서를 받아 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중증정신질환(중증형, 조울증, 중등도이상)의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증)이나 심한 운동성 질환의 경우, 군의관이 판단해서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료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군 면제를 원하거나, 수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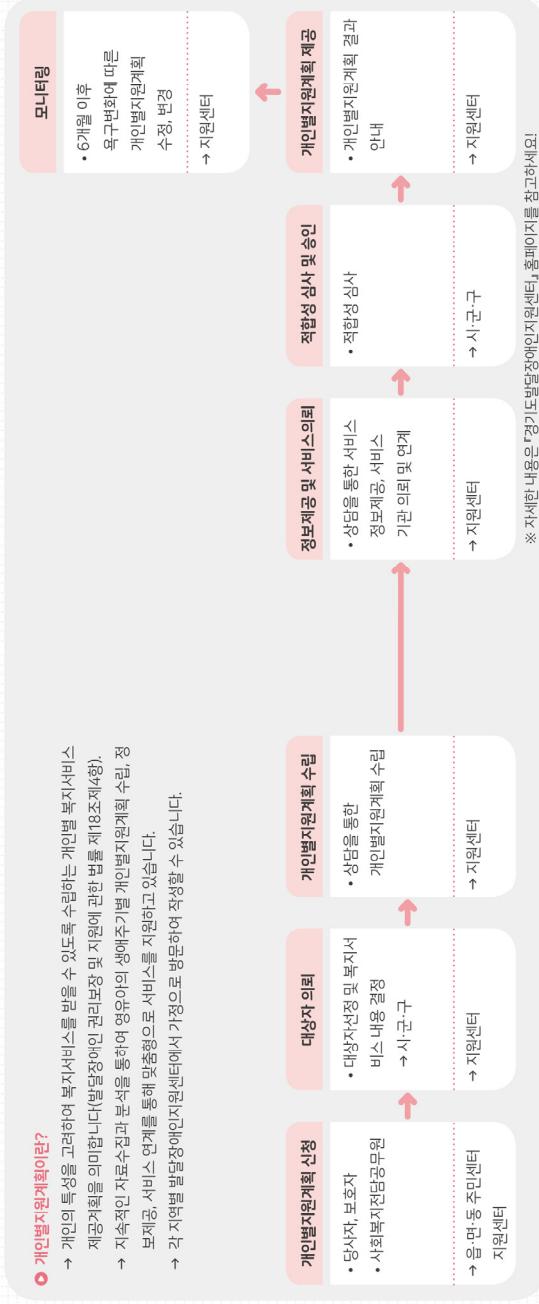
04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Tip 활용 <이렇게 해보세요!>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단받은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반에 재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영유아의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지원계획이란?

-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의미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감해요

-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잘 달래서 먹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애가 키가 안 크네요.
- 퇴근하고 피곤한데 아이가 문밖까지 뛰어나와서 말을 걸면 짜증부터 나오. 전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아이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쁨 뒤에 나가서 같이 산책하는 경험 속에서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무리하는 것은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과 서로 운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 부모를 위한 양육스트레스 검사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1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별호 안에 오피시 해주세요)

- 내가 느끼기에 나는
- ①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
 - ② 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
 - ③ 보통 부모이다. ()
 - ④ 보통 부모보다 조금 낫다. ()
 - ⑤ 매우 좋은 부모이다. ()

-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 24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집에서 깨면 기분이 좋지 않다.
- 2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우리 아이의 수면 습관과 식사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32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이 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 () ②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낀다. () ③ 생각한 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 ④ 생각보다 조금 쉽다고 느낀다. () ⑤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				
33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그 수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온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 ① 1-3개 () ② 4-5개 () ③ 6-7개 () ④ 8-9개 () ⑤ 10개 이상 ()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	우리 아이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36 부지를 위한 <한눈에 보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본 검사는 생후 1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기르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소 36점에서 최대 180점까지의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며, 108점 이상이면 부모님께서 전체적으로 중간점수인 3점 이상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12번까지는 부모님이 느끼시는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 13~24번까지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25~36번까지는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 K-PSI-SF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나는 어떤 부모일까? >

부모는 아이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					
9					
1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점수분석 종합개 내기

실문 체크가 완료 되었다면 이제 종합개를 내 봅니다(총점 = 문항 점수 × 문항수)

**문항점수
보기**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결과해석) 나의 부모 성취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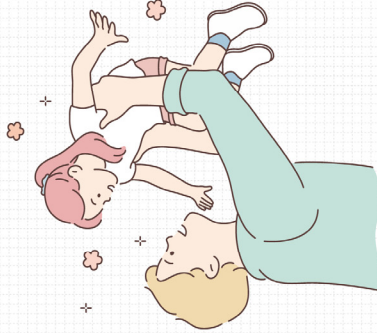
86~100점	자녀가 성장한 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바로 나의 부모님입니다."
70~85점	당신은 좋은 부모이다. 아이도 분명히 그렇게 느낄 것이다.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다.
55~69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부족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40~54점	아이에게 한 바깥만 더 다가가라. 당신이 상상한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이 아이로부터 밀려 올 것이다.
39점 이하	이 테스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부모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라.

40 부스를 위한 <한 눈에 보는 장애우형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 부모로서의 나를 돌아보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인지하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 아래에서 좋은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
한 일입니다.

출처: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2014),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pp. 8-9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41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건지, 누구랑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다 멀리 사시고, 근처에 또래 아이를 키우는 친구도 없어서 답답해요.
- 우리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같은 반 학부모들이랑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매번 병원에 가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없어서 우울해요. 누군가 이야기를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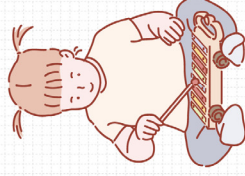
마음이 맞는 주변 사람들과 부모 자조모임을 만드세요. 부모 자조모임이란 부모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모임입니다. 자녀의 여린이집 어머니 모임이나 아 파트 반장회, 동창회 등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시군구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양육 품앗이,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특수한 질병이나 증상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에게서 아이의 증상, 부모의 상호작용이나 지원 방법, 전문적인 치료 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 센터 찾기 >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



05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감해요

-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저랑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주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깐 불안하고 답답해요.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장애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선별과정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장애위험 진단 후에도 적절한 교육적 중재와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의 신뢰와 협조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과제이므로, 교사와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소통하기 바랍니다.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 내가 혹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부모는 아닐까?

< 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한 자기반성 >

	그렇다 (O)	아니다 (X)
1	우리 아이에게만 신경을 더 써주길 원하는 부모 "우리 OO는 예민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요."	
2	교육적/비교육적 소문에 민감하거나, 인터넷 상의 소문을 듣고 쉽게 동조하는 부모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이 사기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게 틀림없고 하더라고요."	
3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 "저항 있을 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아이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4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 "아저씨 OO가 집에서 얼마 안 들었어요. 선생님이 대신 혼 내주세요요."	
5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부모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자 2주나 됐는데, 아직도 어정머다 울잖아요.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6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부모 "친구들은 다 글씨를 읽는데 왜 우리 애만 아직도 자기 이름밖에 못 읽죠?"	
7	무관심한 부모 "보육수원(키즈노트)을 읽지 않고, 어떤쪽이나 준비물을 챙기지 않는 경우"	

위의 문제 중 한 가지 이상 체크하신 곳이 있나요? 많은 부모가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교사의 스트레스와 소진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열방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부모와 협조하여 함께 우리 아이를 키워나가는 양육의 동반자입니다. 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는 교사의 존재는,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도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선생님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신다면, 선생님도 우리 아이에 대해 더 마음을 열고 사랑해주실 거예요.

현안보고서 2020-09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가이드북 개발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홈페이지 www.gfwri.kr

인쇄 더조은프린트 1544-1466

ISBN 978-89-6432-501-8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